

Vol. 630

2021. 11.22-28

공감



gonggam.korea.kr
스캔하면 <공감> 누리집을 만납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인관광객
“한국에 놀러 왔어요”

특집 살아나는 내수, 싹트는 희망_16 “방역수칙 더 철저히 지켜야 일상으로 돌아가”_10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기빠... 사회 편견 해소되길”_50

특별기획 맛있는 정책이야기 ❶ 홍범도 장군 귀환 막전막후 외교 빛났다_40 “안전한 여행으로 소중한 일상 회복하세요”_44



고생 끝, 행복 시작!

11월 18일 오후 광주광역시 남구 동아여자고등학교 고사장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수능은 50만 9821명이 응시한 가운데 전국 86개 시험지구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치러졌다. |연합

상상의 힘

● 김병수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몇 권의 책을 쓴 저자.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했고 지금은 교대역
작은 의원에서 사람들의 상처 난 마음을 잇고 있다.



“상상을 펼쳐 보세요!” 창의적인 글쓰기 시간에 나올 법한 가르침이지만 나는 상담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한다. 차마 말로 하지 못할 때는 속으로 ‘제발 상상력을 조금만 더 발휘해 봐요’라며 간절히 바란다. 상상력은 정신건강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타인의 눈으로 해석하고 세

월이 흐른 뒤에 이 고난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남겨질까?’라며 미래의 시간으로 볼 줄 안다. 이걸 다 상상력 덕택이다.

일상이 단조로워질수록 상상을 펼칠 마음의 공간은 늘어난다. 매일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처럼 정신없이 흘러갈 땐 그것에 적응하느라 상상할 여유조차 갖기 어렵다. 지겹긴 해도 맛있는 일상은 “내 꿈이 뭐지? 먼 미래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며 지금보다 더 성장한 자아를 마음으로 그려 볼 수 있는 기쁨이 된다.

부정적인 전망으로 생각이 편향되면 우울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지만 내 임상경험에 비춰보면 우울증이 심할수록 상상하는 힘 자체가 메말라 버린다. 무력감이 온 몸을 휩싸고 있는 이와 대화해보면 “지금의 나와 다른 내 모습이 도저히 떠오르지 않아요”라며 괴로워한다.

비관적 생각이 들어서가 아니라 무기력하지 않은 자신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막막해한다. 새로운 자기와 달라질 세상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을 때가 바로 정신건강의 위기 상태다. 우리에게엔 비록 그것이 상상의 산물에 불과할지라도 기대라는 마취제가 있어야 고난을 견딜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했더니 자꾸 안 좋은 예상만 떠올라요”라고 불평하는 이도 있다. 그런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도 잘만 활용하면 득이 될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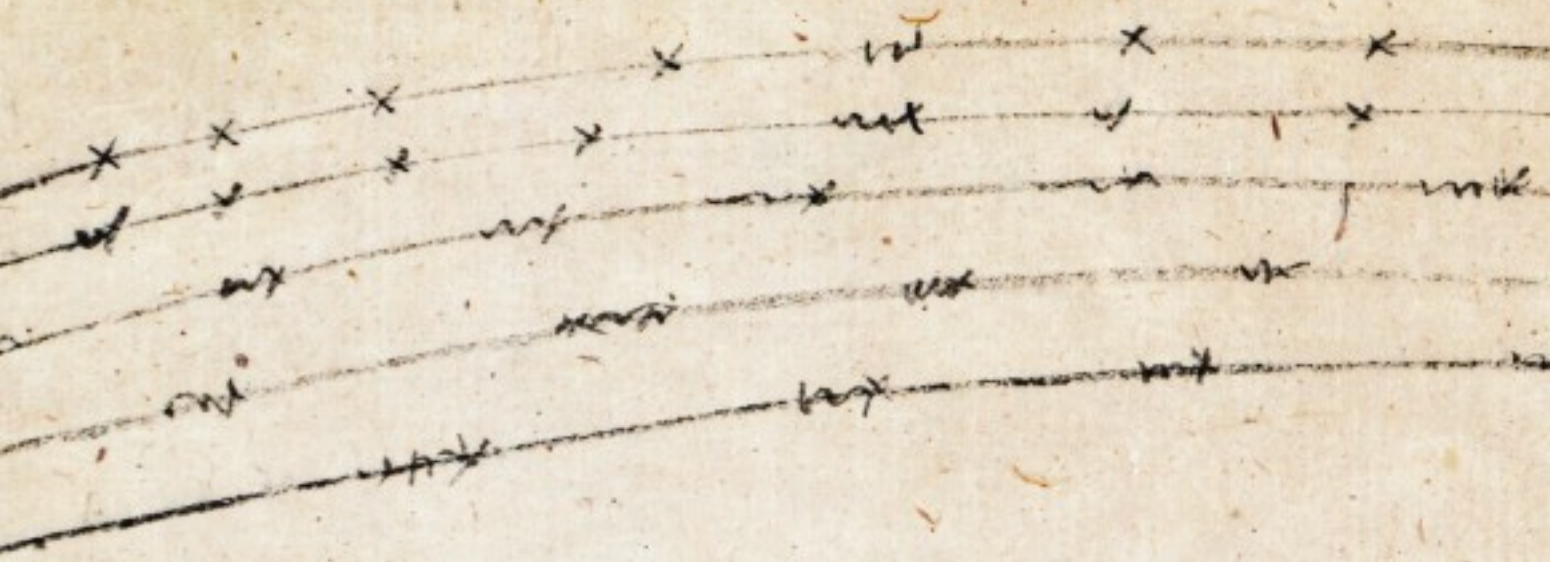
서 걷는 능력이 사라졌다고 상상해봐라. 잠에서 깨어나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두 발이 말을 듣지 않고 갖지어진 고슬 밥을 먹으려 식탁까지 걸어갈 수조차 없다. 출근은커녕 제 힘으로 바지도 못 입는 처지를 생각하기도 싫을 거다. 자, 이제 상상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와 자신을 찬찬히 돌아봐라. 두 발로 서 있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

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스트레스가 닥쳐도 담담하게 “건강을 잃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야!”라고 말하게 될 거다.

마음의 힘으로 손가락을 휘거나 자동차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도 ‘최고가능자기(Best Possible Self)’를 적극적으로 상상하면 자아는 달라지게 만들 수 있다. 간절히 열망했던 사람이 돼 있는 자신을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그렇게 된 나는 어떤 일을 하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점심으로는 무엇을 먹고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마치 지금 현실인 것처럼 상상해 보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하루에 20분씩 4일 동안 최고가능자기에 대해 글을 쓰라고 했더니 긍정 정서가 늘어나고 스트레스 내성이 커졌으며 중요한 과업을 지속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다고 한다. 운동선수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듯이 연습하면 효과가 나온다. 상상만 해도 몸을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뇌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손가락을 움직여 비를 내리겠다는 몽상에는 이런 효과가 없다.

나라는 존재는 이미 지나온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살게 될 미래의 나에 대한 상상으로 완성돼 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면 상상은 현실이 된다. ●



임진강철조망둘러진허공이
오선지같다
새한마리음표처럼앉아있다
음악이시작되려는지

김주대







공감

훈민정음체의 의미를 되살리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 한 제호입니다.

Vol. 630
2021. 11.22~28



표 지 이 야 기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인관광객 "한국에 놀러 왔어요"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의 관광객들이 11월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왔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이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외국인의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국가부터 점진적으로 격리 면제를 확대하고 유전자 증폭(PCR) 검사 횟수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겨레

김병수의 마음 탐구

01 상상의 힘

02 공감 글판

국정종합

06 "코로나19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 자유무역에 달렸다"

힘내라 대한민국

08 추가접종 일정 1~2개월 단축

재택치료자 전담 구급차 운영

10 "방역수칙 더 철저히 지켜야 일상으로 돌아가"

12 정부 지침보다 더 엄격한 자체 방역

"다른 감염병에도 대처할 원칙 배워"

특집_살아나는 내수, 싹트는 희망

18 단계적 일상회복 바람 타고 소비가 '들썩'

22 "관광객과 다시 만나는 거 자체가 기적이에요"

26 "이제야 먹자골목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네요"

공감 현장

30 시장에 고객센터 생기니... 소비자·상인 '좋아요!'

34 "브랜드K 선정돼 고객 신뢰 높아졌어요"

40





44

- 38 **홍화정 만화_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⑤**
일상을 가볍게, 탄소배출도 가볍게
- 40 **특별기획_ 맛있는 정책이야기 ④**
홍범도 장군 귀환 막전막후 외교 빛났다
- 내 삶을 빛내는 문화**
- 44 “안전한 여행으로 소중한 일상 회복하세요”
- 46 “2022년엔 국내 관광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48 완전자율주행의 꿈을 실현한다
- 포용적 복지**
- 50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기뻐... 사회 편견 해소되길”
- 내 삶을 바꾸는 정책**
- 52 “이제 곧 신북방정책 성과 드러낼 것”
- 54 혈액 수급 빨간불... “적극적 헌혈 동참을”
- 55 요소수 수급 파란불... “입고량, 하루 판매량 초과”
- 연재_K-컬처 ⑥**
- 56 웹툰·웹소설 타고 오디오 드라마가 뜬다
- 연재_공감 스포츠 ⑧**
- 58 도쿄올림픽 열기 이어 더 뜨거워진 여자배구
- 연재_공감 우리말 ②**
- 60 ‘막 거른’ 술 한잔에 일상회복 카~

58



- 연재_ 한국인이 사랑하는 한국 작가 ③4**
- 화가 이래대**
- 62 시대의 아픔과 분단의 한계를 넘어
- 64 참여공감

발행일 2021. 11.2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황희
기획 국민소통실 콘텐츠기획과
(044) 203-3014
제작협력 한겨레미디어
인쇄 팩컴코리아
구독 문의 및 주소 변경(수신자 부담)
080-851-0183

-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공감>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o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2일 ‘우리 모두와 미래세대의 번영을 위한 코로나19 회복’을 주제로 열린 202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빠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 역시 다자주의와 호혜적 협력에 기반한 자유무역에 달려있다”며 “역내 무역질서 회복과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와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고 APEC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을 비롯한 APEC 정상들은 ‘사람들을 함께 묶는다’는 의미로 연대를 상징하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전통 술을 어깨에 걸치고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상징하는 목걸이를 착용하고 회의에 참석했다.

FLNG선 출항 명명식 “탄소중립 여정에 큰 힘”

문 대통령은 11월 15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돼 출항

“코로나19 극복과 I 글로벌 공급망 안정 I 자유무역에 달려있다”

질서 복원을 강조하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APEC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질서의 복원으로 더욱 단단한 경제공동체가 돼야 한다”며 “(11월 30일부터 열리는)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PEC 정상들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체제 수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더 많이 타격을 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26회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성과를 계기로 실질적 행동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APEC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과감하게 상향했고 메탄 감축을 위한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했다”며 “기후 재원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을 앞둔 ‘부유식 해양 LNG 액화플랜트(FLNG)’에 대해 “코랄 술(Coral-Sul)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액화 천연가스(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하는 FLNG 선박 ‘코랄 술’ 출항 명명식에 필리프 자신투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 내외와 함께 참석해 “세계는 지금 LNG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FLNG는 원거리 해상에 있는 가스전으로 이동해 해상에 부유한 상태로 LNG 생산, 저장, 출하가 가능한 해상 이동식 복합기능 플랜트를 말한다. 이번에 ‘코랄 술’로 명명된 FLNG는 전 세계 네 번째로 건조된 대형 FLNG이자 모잠비크 가스전의 첫 번째 FLNG로서 길이 432m, 폭 66m, 높이 39m의 크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그린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 완전한 전환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5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모잠비크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FLNG) 출항 명명식에서 축하하고 있다. | 청와대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로 더 많이 타격을 받은 국가와 계층이 있다.
한국판 뉴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겠다.”**

다”며 “탄소중립에 이르는 과정 동안 화석연료 중 탄소 배출량이 가장 낮고 발전효율이 높은 LNG는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축구장 네 개 규모의 거대한 ‘코랄 술’ FLNG가 드디어 인도양을 향해 출항해 모잠비크 북부 해상 제4광구에서 활약하게 될 것”이라며 “모잠비크 해상가스전은 세계 최대 규모로 평가되고 있고 LNG 생산이 본격화되면 모잠비크 경제는 연평균 10% 이상 고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프라와 제조업의 동반성장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무탄소·스마트 선박도 개발 예정”

아울러 함께 참석한 뉴지 모잠비크 대통령을 향해 “‘코랄 술’ FLNG는 뉴지 대통령의 고향인 카부델가두 앞바다에서 연간 340만 톤의 LNG를 생산, 출하하게 된다”며 “오늘의 깊은 인연 위에서 양국 협력이 더욱 강화돼 고향 친구같이 가까운 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며 “세계 선박 시장에서 1위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 컨테이너선과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초와 세계 최대는 물론 전 세계 대형 FLNG 네 척 모두를 한국이 건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친환경 선박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무탄소 선박과 스마트선박도 개발할 예정”이라며 “모잠비크의 대형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랄 술’ FLNG는 우리나라 가스공사가 10% 지분 참여한 모잠비크 제4해상 광구에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LNG 생산을 시작하며 우리나라 연간 LNG 소비량(2020년 기준)의 8.5%에 해당하는 340만 톤의 LNG를 매년 생산할 예정이다. ●

박순빈 기자

추가접종 일정 1~2개월 단축 재택치료자 전담 구급차 운영

정부 대책 종합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1월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일상회복 단계를 이행할 것인지, 비상계획을 시행할 것인지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며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는 의료·방역 대응 상황, 확진자 발생 현황, 예방접종 현황 등 3개 영역에서 17개 지표를 중심으로 점검한다”고 말했다.

위험도 평가는 유행 발생부터 입원, 중증, 사망 및 대응 수준 등에 대해 ▲의료·방역 대응지표 5개 ▲코로나19 발생지표 8개 ▲예방접종지표 4개 등 3개 영역에서 17개 지표를 점검한다. 특히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주간 신규 위중·중증 환자 수 등 5개를 핵심지표로 삼고 그 외 다양한 일반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평가한다.

코로나19 위험도는 주간 평가와 단계 평가, 긴급 평가로 진행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고려해 전국 단위와 수도권, 비수도권의 위험도를 구분해 평가한다. 주간 평가는 이전 주간의 위험도에 대해 매주 평가하고 코로나19 위험도 수준을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해 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단계 평가는 11월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4주간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 지표 및 기준은 주간 평가와 동일하되 4주간 위험도 및 위험요인과 조치방안 등을 공개한다.

정례 평가절차와 별개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75% 이상 등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긴급 평가를 실시해 종합 위험도와 주요 위험요인, 비상계획 실시 여부 및 조치사항을 즉시

논의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정 청장은 “전반적으로 60세 이상 환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위중·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양상으로 수도권에서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60세 이상 및 고위험군의 추가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서는 신속한 추가접종과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험도 매주 5단계로 평가 뒤 일상회복 이행·비상계획 결정

정 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현재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로 돼 있는 추가 접종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 요양병원 등을 포함한 감염취약시설 대상자, 의료기관 종사자, 기저질환자 등은 4개월로 단축하고 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에 대해서는 5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역학 상황에 대한 분석과 백신별 항체 분석 및 국외 사례 등을 근거로 전문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됐다.

정 청장은 “우리나라는 접종 완료율이 높은 수준이지만 상반기에 우선 접종한 고령층의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돌파감염의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또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백신의 중화기능이 감소하고 접종 완료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항체가 감소해 추가접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위중·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의료대응체계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다.

정 청장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돼 감염위험이 더욱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등 추가접종 간격을 4개월로 단축해 12월까지 추가 접종을 완료하고자



재택치료자가
호흡곤란과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혹은
중증도 및 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전담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의료기관 등 자체적으로 접종을 시행하는 기관은 11월 17일부터 바로 4개월의 단축 기간을 적용해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건소의 방문접종이 필요한 감염 취약시설은 일정을 조정해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재택치료자 응급시 이송체계 강화

앞으로 재택치료자가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에 처하거나 중증도가 판단되지 않으면 119구급차가 우선 출동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이송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소방청으로부터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방안에 따르면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해 단순한 증상 발현인 경우에는 보건

소나 민간의 구급차로 이송한다.

재택치료자가 호흡곤란과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혹은 중증도 및 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전담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이를 위해 시·도별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관리의료기관과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한다.

또한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출동 119 구급대원에게 환자상태와 배정병상 등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하고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특히 감염병 전담구급차 295대를 포함한 전국의 119구급차 1581대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기간제 구급대원 등 인력이 확보될 경우 예비구급차 137대도 즉시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재택치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응급 이송을 비롯한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정연 기자

“방역수칙 더 철저히 지켜야 일상으로 돌아가”

단계적 일상회복 맞은 시민들 목소리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바뀐 뒤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를 마주했을까? 사적 모임이 재개되고 ‘치맥(치킨+맥주)’과 팝콘을 먹으며 스포츠·영화 관람이 가능해졌고 결혼식장의 풍경도 예전을 닮아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한 것이다. 즉 24시간 영업을 가능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방역 피로감이 쌓인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이 방역 긴장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방역조치를 완화했다면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 공감했다. 그래야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다고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강력한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지 보름, 사회 각계 각층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은 어떻게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맞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봤다.

40대 직장인 “모두 힘내서 다시 일상으로”

서울의 대표 업무지역인 광화문 거리는 유동인구가 부쩍 늘어난 모습이다. 점심 시간 대 명찰 목걸이를 걸고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인근 식당과 카페를 찾아가는 직장인들이 여럿 보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달라진 풍경이다.

“마스크도 잘 쓰고 있고 다섯 모두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쳤어요.” 카페에서 만난 장유리(45) 씨 일행은 행여나 오해를 살까 걱정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여럿이 커피 한 잔 하는 게 별일인 시대를 지나왔다”며 웃었다. 장 씨 일행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적절했다는 반응이다. “전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훌쩍 넘겼잖아요. 걱정은 안 해요.”

저녁에도 광화문 일대에 온기가 감돈다. 그동안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으로 텅 비었던 식당에 손님들이 제법 들어 차 있

다. “단계적 일상회복 분위기를 타고 손님들이 늘고 있어요.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큼니다. 11월 1일부터 제한 인원이 10명까지 완화되는데 영업시간도 제한 없이 풀리면서 그간 쏘 그라들었던 매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수현(55) 씨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거는 기대다.

인근 순댓국집에서 만난 직장인 양동명(49) 씨는 기업의 단계적 일상회복 대응에 대해 들려줬다.

“정부가 단계별로 일상회복에 나서듯 우리도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재택근무는 당분간 유지하려고요. 근무 시스템 정상화보다도 직원들 사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강제적인 관계 단절로 위축된 답답함을 날려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10명까지 모일 수 있으니 팀별로 회식을 할 계획입니다. 모두 힘내서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야지요.”

20대 대학생 “강의실서 교수님과 대면수업”

대학 캠퍼스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10월 25일을 전후로 대면수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 상당수 대학이 소규모 이론 강좌에 대해 대면수업으로 전환하거나 등교확대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실에서 교수님과 대면수업을 하고 동기들과 같이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학교 주변 카페에서 우르르 모여 커피를 마시는 상상을 해봐요.” 덕성여대 1학년 유혜림(21) 씨의 말이다. 예전 같으면 너무나 당연했을 대학생살을 ‘코로나 학번’인 신입생은 설렌다고 했다.

성결대학교 정민아(51) 교수는 “거의 2년간 임시적 생활형태로 살았다”며 “많은 이들이 원래의 일상을 그리워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실습 수업은 거의 대면으로 전환됐고 이론 수업 역시 대면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 학교방역이 느슨해질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뒤 첫 주말인 11월 7일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
안이 하객들로 북적이
고 있다. | 한겨레

“지금은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을 완화할 수록 시민들은 더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등 참여방역이 중요합니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김선영(20) 씨는 “아직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았고 델타 변이 같은 이종도 많이 나오고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방역 완화가 정말 괜찮을지 모르겠다”며 “환자가 급증해서 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피로가 더 누적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 만큼 방역수칙 준수가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보건학을 전공하는 최유경(22) 씨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다고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모든 국민이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손씻기,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만 꿈꿔온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50대 택시기사 “수입 증대 효과 뚜렷”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택시기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택시기사 한태평(50) 씨는 “이태원 홍대 등 서울 변화가에 야간 택시 이용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한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근래 20~30% 정도 수입이 늘었어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완화 되면 그 효과는 더욱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씨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혹 손님들 중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생각한 건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승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을 완화할 수록 시민들은 더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등 참여방역이 중요합니다.”

한 씨는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힘겨운 사투의 시간을 보냈다. 그 긴 시간을 지치지 않고 모두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 일상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모든 이들에게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일상회복을 위해 함께 조금만 더 힘내보자는 말을 건네고 싶다”고 말했다. ●

심은하 기자



1 VM휘트니스는 질병관리청이 방역수칙 준수 모범사례로 선정할 만큼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운영해왔다. 한지연 대표가 입구에서 자체 방역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 지침보다 더 엄격한 자체 방역 “다른 감염병에도 대처할 원칙 배워”

일상회복 현장을 가다 ① VM휘트니스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작됐다.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과 샤워실 이용 제한이 해제됐다. VM휘트니스도 자정까지 정상 운영하고 있다.

앞서 2020년 8월 서울 동대문구 VM휘트니스 제기점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헬스장에 다녀간 회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지연 VM휘트니스 대표는 이 사실을 회원들에게 감추지 않고 바로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운동하고 있던 회원들에게 환자가 다녀가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힌 뒤 “지금부터 헬스장 문을 닫고 방역 조치를 하겠다”고 안내하자 일부 회원은 바로 회원권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역학조사를 거쳐 직원 등 밀접 접촉자들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결과 다행히 아무도 감염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지연 대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우리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안전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세부 방역 지침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찾아 나갔습니다.”

운동은 물론 샤워할 때도 마스크 쓰기

우선 마스크 쓰기부터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일부 회원은 “운동할 때 마스크 쓰면 답답해서 못 한다”며 마스크를 툴까지 내린 ‘턱스크’ 상태로 운동하기를 고집했다. 직원들이 계속 다니며 마스크를 내린 회원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요



2

“앞으로 저희가 더
강력한 조치를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저희 회원들만큼은
믿고 따라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이런 신뢰가 바탕이
돼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얼마나 많은 분이
다시 돌아올지...”



3

2 일회용 물컵을 없애고 개인용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3 스트레칭 존은 3명 이상이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청했다. 경고를 세 번까지 무시하면 아예 퇴장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심지어 샤워할 때도 마스크를 그대로 쓴 채로 머리는 감지 말고 몸만 씻기를 권유했다. 탈의실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회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탈의실을 드나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또 실내 체육시설이 문을 닫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회원들과 한 동안 실랑이를 벌인 뒤 자연스럽게 마스크를 쓴 채로 운동하고 샤워까지 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았다.

“나중에는 오히려 회원들이 ‘잘한다, 잘한다’ 해줬어요. 확산세가 한창 심각할 때 다른 헬스장은 쉬쉬해서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는 오히려 알리고 이렇게 대처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는 불편함 때문에 반발하던 분들도 나중에 필요성을 인식한 뒤부터 잘 협조해주더라고요.”

정수기 일회용 물컵과 일일 입장권 없애

이어서 정수기 앞에 두던 일회용 물컵을 없앴다. 일회용 물컵이 있으면 여러 사람이 마스크를 내리고 물을 마시는 정수기 앞에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수기 앞에서는 물을 못 마시게 하고 일회용 물컵 대신 개인 물통을 들

고 다닐 것을 요청했다.

“회원들은 불편하니까 당연히 반발하죠. 그런데도 서로가 더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모두 개인 물통을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회원이 없는 곳에서 마시려고 해요. 식당이나 미용실 등 다른 업소들도 일회용 물컵을 없애고 정수기 앞에서 음료를 마시지 않는 문화가 정착한 것 같아요.”

일일 입장권도 없앴다. 일일 입장권은 연 회원이나 월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당일만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이다. 큰 폭으로 할인해주는 연 회원권이나 월 회원권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쓸쓸한 수입원이다.

“연 회원이나 월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들은 자신이 매일 운동하는 곳이라 방역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일 입장하는 분들은 조금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대신 기존 회원과 동반하는 지인은 일일 입장이 가능해요. 기존 회원이라는 분명한 연결 고리가 있으니까요.”

7차례 진단에도 집단감염·추가 확산 없어

2020년 8월 이후 VM휘트니스 제기점과 삼성점에 7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다. 심지어 부부 회원이 감염된 일도 있



4 VM휘트니스 직원이 운동기구를 소독하고 있다. 5 얼굴 인식 출석 시스템이 있어 손을 대지 않고 입장할 수 있다. 6 마스크를 쓰고 운동한 덕분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감기 환자도 많이 줄었다. 한 회원이 마스크를 쓴 채 운동하고 있다.

었다. 역학조사를 해보니 환자 한 명이 다녀간 시간에 직원을 포함한 방문자 수는 평균 100여 명이었다. 그러나 강력한 방역 조치 덕에 집단감염은 커녕 추가 환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10월 1일에는 직원이 감염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 대표는 “직원 한 명이 출근해서 열이 있는 것 같다고 보고하길래 바로 조퇴해 PCR 검사를 받게 했는데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감염 경로는 VM휘트니스가 아니었지만 한 시간 동안 회원과 개인교습(PT)을 하는 직원이 감염됐기 때문에 회원이나 동료 직원으로 추가 확산이 우려됐다. 한 대표는 청량리점까지 세 지점의 PT 수업을 모두 중단시키고 전 직원이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PT 수업을 받는 회원들에게는 수업을 중단시킨 이유를 사실대로 알렸다.

다음 날 새벽 검사 결과가 나왔다.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은 아무도 없었다.

“제가 마스크 쓰기를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자가 여러 차례 다녀간 현장에서 그 효과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직원이 PT 수업할 때는 물론 직원들끼리 있을 때도 마스크를 쓰게 하고 웬만하면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거든요. PT 수업을 받은 회원이 감염된 일이 있었는데 같이 있던 트레이너조차 안 걸렸어요. 마스크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건 정말 큰 차이

가 있더라고요.”

전 직원의 음성 판정 결과는 모든 회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알리고 입구 게시판에 공개했다. 잠복기를 고려해 일주일 뒤에 모든 직원이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았다. 역시 양성 판정은 없었다.

“직원들이 귀찮았을 텐데도 다 잘 지켜주더라고요. PT 수업을 못 받은 회원들도 저희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수업을 정지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왜 수업을 못 해’라고 항의하는 대신 저희가 실의가 아니라 회원의 안전을 따지는구나 이해해 줘서 감사했죠.”

일상회복 시작에 기대 반 걱정 반

한 대표는 코로나19 때문에 휘트니스 이용을 잠깐 정지했거나 아예 그만둔 회원들이 다시 돌아올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그동안 매출은 거의 반으로 떨어졌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코로나19에 제일 타격이 심한 업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에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 불만이 많지만 계속 반발하기보다는 거기에 맞춰 방역이나 시스템 같은 것을 바꿔야 한다고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정부에서 시키는 방역 지침 사항보다 환기나 기구 소

독, 연무 소독의 횟수를 더 늘려 강화한 저희만의 자체 방역 체계를 만든 거죠.”

VM휘트니스에는 손을 대지 않고 쳐다만 봐도 입장할 수 있는 얼굴 인식 출석 시스템이 있지만 출석과 체온을 확인한 뒤 출입자 명단까지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중으로 관리하는 이유에 대해 한 대표는 “회원은 출입 기록이 출석 시스템에 남지만 상담하러 오는 분들은 기록이 없다. 만약 환자가 다녀가면 그런 분들한테도 연락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이중으로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트레드밀(러닝 머신)은 물론이고 스트레칭 공간에서도 거리 두기를 위해 한 칸 띄우게 했다. 초반에는 불편해하고 불만을 터뜨리던 회원들도 강력한 방역 조치 덕분에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매일 한 두 차례 진행하던 연무 소독을 소독기 고장으로 며칠 중단하



6

“회원의 안전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꾸 숨기고 피해 가는 것보다

맞닥뜨려 살아남을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지금은 경쟁력인 것 같아요.”

자 일부 회원이 왜 소독하지 않냐고 먼저 이야기할 정도다.

“앞으로 저희가 더 강력한 조치를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저희 회원들만큼은 믿고 따라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가 문제죠. 이런 신뢰가 바탕이 돼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얼마나 많은 분이 다시 돌아올지...”

현재와 같은 방역체계 계속 유지

일상회복이 시작됐다고 코로나19 이전의 VM휘트니스로 그 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 한 대표는 코로나19의 종식은 없다고 가정하고 지금과 같은 방역체계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감기나 다른 질병으로부터 회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침이나 비말을 통해 전염되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감염이 줄어든 거잖아요. 마스크 쓰기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할 원칙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느낌이에요. 더군다나 여기는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강제성을 뒀서라도 마스크 쓰기는 유지하려고 해요.”

한 대표는 “청소나 소독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하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방역과 안전,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었다”며 “더 위생적이고 청결해야 하는 곳이 바로 실내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감염병에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회원의 안전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꾸 숨기고 피해 가는 것보다 맞닥뜨려 살아남을 방법을 빨리 찾는 게 지금은 경쟁력인 것 같아요.” ●

글 원낙연 기자, 사진 박윤섭 기자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첫 휴일인 11월 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에 국내 최대 쇼핑 축제인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연합뉴스

살아나는 내수 싹트는 희망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면서 경제 회복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 속에 비춰진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을 선도하는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세계경제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보면 2020년과 2021년 두 해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 속도는 주요 20개국(G20) 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

국내외 기관이나 금융회사들이 속속 발표하는 2022년 우리나라 경제전망도 대체로 밝은 편이다. 2022년 경제성장을 전망치가 3%선 안팎인데 이 정도면 전체 거시경제의 총량 지표로는 양호한 흐름이다. 그동안 수출과 제조업 위주의 '외끌이 성장'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차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민간소비(내수)가 양호한 흐름에 힘을 더할 차례다.

민간소비는 경제의 위축과 확장을 좌우하는 중심 축이다. 2020년에 기록한 -0.9% 역성장은 '민간소비 5% 감소'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2021년 경제성장을 전망치로 제시한 4.2% 달성이 버거워진 것도 소비 부진 탓이다. 그만큼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는 커녕 2022년 이후 중장기 성장 전망까지 불투명해진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이 큰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불거지는 세계 공급망 차질,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정책 전환 움직임,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대외 부문의 위험 요소들은 단기 대응이 어렵다.

증대하는 외부의 잠재적 위험은 내부의 잠재력으로 상쇄할 수 있다. 바로 내수 기반의 강화와 확대다. 수출과 제조업이 주도해온 경제 성장을 고용 활력, 임금과 가계소득 증대,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건실한 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의 관건이다.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지원 대책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기지개를 켜는 내수 회복의 움직임을 살펴본다.

KDI 2022년 경제전망

자료: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년 동기 대비, (단위: %)



단계적 일상회복 바람 타고 소비가 ‘들썩’

내수 진작 지원 정책은?

2021년 7~8월에 급랭했던 민간소비(내수)는 다행히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부터 뚜렷한 회복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계절조정 기준)이 전월보다 1.3% 증가하는 등 내수 경기 관련 지표들의 호전이 두드러진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백신 접종 확대 등의 효과로 보인다. 대표적인 대면 서비스업인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한달 만에 무려 10.9%나 늘었다. 6월(2.5%) 이후 석 달 만의 반등으로 증가 폭은 2021년 2월(20.8%)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7월(-0.5%)과 8월(-0.8%)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9월에는 2.5% 상승세로 돌아섰다. 업태별 판매액은 백화점(22.1%), 면세점(18.6%), 전문소매점(12.5%), 편의점(6.7%), 무점포소매(6.2%) 등의 차례로 증가율이 높았다.

4차 확산세에도 소비자심리지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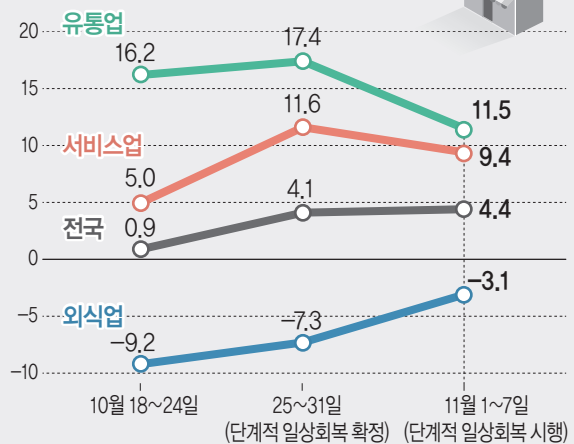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도 낙관적이다. 한국은행이 현재 가계의 생활 형편과 6개월 뒤의 수입 및 지출 전망까지 조사해 산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월에 106.8를 기록해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100을 기준값으로 하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낙관적인 전망이 더 많음을 나타내고 낮으면 그 반대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1차 확산기(2020년 1~4월)에는 31.5포인트, 2차 확산기(2020년 8~9월) 8.3포인트, 3차 확산기(2020년 11~12월)에는 각각 7.8포인트 하락했다. 7월 이후 4차 확산기에는 8월까지 두 달 동안 7.7포인트 떨어졌다가 9월부터 다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4차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체계 전환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미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매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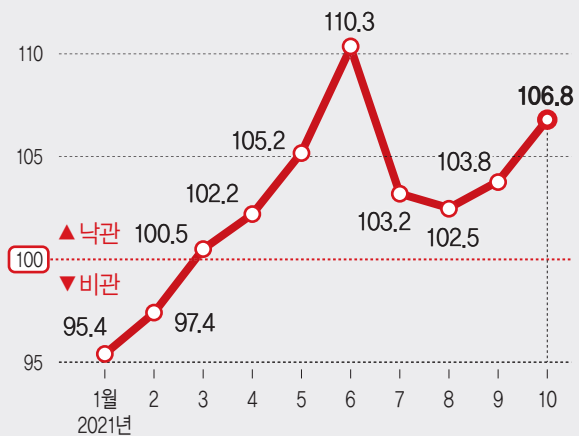
자료: 한국신용데이터

2019년 동기 대비(단위: %)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실제로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체계는 내수 경기 활성화의 분수령이 될 듯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11~12월 두 달 동안 중앙정부 잔여 예산 101조 원 등을 차질없이 집행해 내수 경기 보강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특히 민간소비 촉진, 고용 회복 흐름 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재정을 통한 거시정책의 핵심 과제로 삼았다.



경기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도 낙관적이다. 4차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방역 체계 전환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이 미리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가운데 11월 1일 서울 송파구 한 먹자골목에서 시민들이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올해 남은 기간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회복에 보강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내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생소비지원금 소비 진작 기대 효과

가장 급한 재정 지출 소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명령을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포함해 2조 40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약 80만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3분기에 발생한 영업손실의 80%를 보상하는 것으로 시행 안을 짰다.

매출과 영업이익 비교 기준 시점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이다. 보상금 신청 접수와 지급은 10월 27일 온라인 창구에서부터 시작했다. 11월 3일에는 전국 시·군·구의 오프라

인 창구도 일제히 열었고 11월 10일부터는 현장 ‘확인 보상’을 위한 신청과 이의 제기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손실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낮은 이자로 목돈을 대출하거나 매출 회복을 지원하는 등 업종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11월 중 따로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11월 15일 첫 지급이 시작된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은 곧바로 소비 진작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인책이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월간 결제 금액이 2분기의 월평균보다 늘어난 사람에게 증가분의 10%, 월 최대 10만 원까지 돌려주는 현금성 충전금이다. 정부는 캐시백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7000억 원을 마련해 연말까지 집행한다. 캐시백 지원을 원하면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해당 카드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일자와 상관없이 10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는 사용 실적 합산과 누적 캐시백 산정과 예상 지급액 등 모든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제공한다. 기재부는 10월 중 캐시백 지원 신청자 수가 1488만 명, 충전액은 3035억 원

소비쿠폰 9종 사용 재개 (11월 1일 전면 재개) 자료: 기획재정부

(단위: 억 원) **예산 잔액**

농수산	농수산물 구매시 20% (최대1만 원) 할인 제공	739
외식	외식업소 4회 (회당 2만 원 이상) 이용시 1만 원 환급	180
공연	1인당 8천원 할인 제공	139
숙박	온라인 예약시 2~3만 원 숙박할인 제공	565
체육	실내체육시설 월 누적 이용금액 8만 원 이상시 3만 원 환급	330
영화	1인당 6천 원 할인 제공	123
여행	공모 선정된 국내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선결제시 40% 할인 (11월 중순 사용 가능 전망)	90
전시	미술관 1~5천 원 할인 / 박물관 40% 할인 (최대 3천 원)	86
프로스포츠	축구·야구·농구·배구 경기 관람시 50% 할인 제공 (최대 7천 원)	30

정부는 늘어난 가계 자금이

내수 활성화, 나아가

더 강한 경제 회복의 에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과 수출이 경제의

버팀목이었다면 앞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힘은 민간소비에서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으로 잠정 집계했다. 10월 사용 실적은 11월 15일 지급됐고 11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쌓인 캐시백을 12월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한다.

9대 소비쿠폰도 연말 경기회복 주춧돌

11월부터 전면 사용을 재개한 9대 소비쿠폰도 해당 업종의 연말 경기를 돌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분야의 수요 진작을 위해 2020년 3차 추경부터 2021년 본예산과 2차 추경에 걸쳐 모두 5528억 원의 소비쿠폰 재원을 확보했으나 방역 상황 악화로 2020년 11월 이후 숙박·여행·체육·영화·전시·프로스포츠 관람 등 여섯 가지 쿠폰은 사용을 전면 중단했고 외식·공연·농수산물 등 세 가지 쿠폰도 온라인 같은 제한적 사용만 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체계 전환에 맞춰 정부는 연말까지 잔여 예산 2282억 원을 투입해 모든 쿠폰의 사용을 온·오프라인 구분없이 전면 재개했다. 제휴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사용과 연동된 외식쿠폰은 2만 원 이상 음식을 세 번 주문하면 네 번째에 1만 원을 돌려주는 방식이고 체육쿠폰은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월 3만 원의 할인 혜택이 있다.

영화쿠폰을 받으면 멀티 플렉스와 독립 영화관에서 구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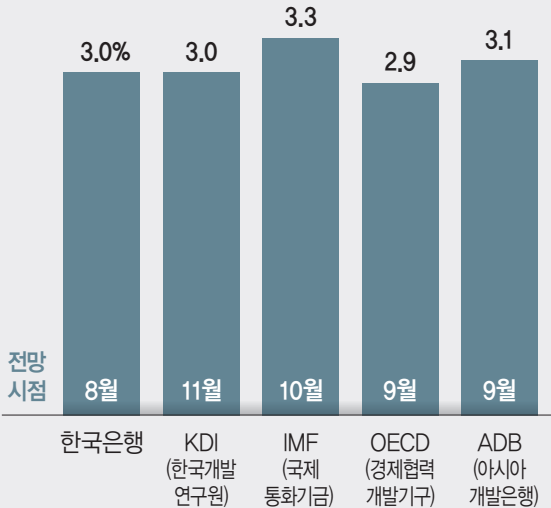
는 표 1장 당 6000원을 준다. 전시쿠폰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5000원, 박물관 입장료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최대 3000원을 할인해준다. 공연쿠폰은 온라인 예매시 티켓 가격을 8000원 할인해주며 여행쿠폰은 공모로 선정된 국내 여행 상품을 예약과 동시에 미리 결제하면 40% 할인 혜택이 있다. 온라인 여행사 50여 곳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은 숙박비 7만 원 초과 시 3만 원, 7만 원 이하는 2만 원 할인을 적용한다.

내수 활성화는 더 강한 경제 회복의 힘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활성화는 경기 변동성을 줄이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어엿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선진국답지 않게 민간 소비 비중이 왜소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안에서 비교해 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48.5%로 38개 회원국 평균(54.8%)보다 훨씬 낮다. 민간소비 규모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다.

인구 수 5000만 명을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의 국가를 뜻하는 이른바 '50-30' 클럽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소비 비중이 최하위다. 2017년에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이 클

국내외 주요 기관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럼에 진입하며 양적, 질적으로 경제 대국 반열에 올라선 국가로서 왜소한 민간소비는 어색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민간소비 비중은 더 축소됐다. 2020년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46.5%로 떨어져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년 3분기에는 46.1%로 더 떨어졌다.

이는 민간소비 주체인 가계의 지출 능력이 약화된 탓이 아니다. 오히려 가계순저축률은 2019년 6.9%에서 2020년 11.9%로 폭등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순저축률은 세금과 사회보험금, 이자 등을 제외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모든 소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소비를 하고 남은 돈의 비율이다. 가계순저축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결국 가계의 여유 자금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정부는 늘어난 가계 자금이 내수 활성화, 나아가 더 강한 경제 회복의 에너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과 수출이 경제의 버팀목이었다면 앞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힘은 민간소비에서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양극화와 불평등의 골도 민간소비 확장으로 메우는 게 더 바람직하다. ㉠

박순빈 기자



1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1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첫날인 11월 1일 대구 신세계백화점을 방문해 행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2 서울 중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시민들이 줄서서 주문을 하고 있다. | 한겨레



“관객과 다시 만나는 거 자체가 기적이예요”

기지개 켜는 대중문화계

코로나19 여파로 오랜시간 힘들었던 대중문화계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고 있다. 그동안 대중문화계는 코로나19로 영화 상영은 물론, 공연과 콘서트 등의 행사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공연이 중단되고 배우들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영업시간 규제도 해제됐고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좌석 띄우기도 해제됐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와 좌석 띄우기 등을 실시하면 500명 이상 공연 관람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공연장은 백신 접종 완료자만 받을 경우 전석 입장할 수 있으며 영화관에서는 그동안 불가능했던 취식도 가능해졌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한껏 기대감에 들떠 있는 공연장과 영화관 현장을 다녀왔다.

대면 공연 재개한 연극계

연극의 메카 대학로에 위치한 한 소극장. “아니~ 내 첫사랑 000! 왜 거기 앉아있니? 옆에 있는 그 남자는 누구니?!” 객석을 바라보며 외치는 배우의 한마디에 관객들이 배꼽빠지게 웃으며 뒤로 넘어간다. 무대 위 배우들은 공연내내 설새없이 관객들의 웃음을 빵빵 터뜨렸고 마스크를 착용했음에도 관객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표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배우와 관객들이 함께하는 시간. 이전에는 몰랐던 행복이다. 당연했던 일상이 이토록 소중했다는 것을!

연극 〈수상한 홍신소〉는 2010년 초연 이후 3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대학로 최고 흥행작 중 하나다. 하지만 이 연극 역시 코로나19 이후 극장이 줄어들고 공연이 잠정 중단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매년 만석을 자랑했던 공연장은 텅텅 비었고 매출이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제작사측은 4개로 운영하던 극장을 1개로 줄이고 온갖 대출을 끌어들여 손실을 메우면서 지금까지 겨우 버텼다. 그러던 중에 들려온 단계적 일상



2

회복은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공연 관계자 표정필 씨는 “대학로는 사람들이 식사하고 공연이나 영화를 본 후 술을 마시는 소비흐름으로 돌아가던 장소였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공연뿐만 아니라 대학로 모든 상권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은 자영업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반색했다.

“마스크 벗고 소통하는 날 오길 희망”

마음 고생했던 배우들 역시 “이제야 살 것 같다”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배우 황미선 씨는 “처음 공연이 중단됐을 때는 ‘이 참에 좀 쉬어야겠다’고 좋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기약 없이 길어지니까 너무 힘들었다”며 “다시 관객들을 만났을 때는 감격스러워 계속 눈물이 났다. 관객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극계 경력 10년이 넘는 배우 지상록씨는 “공연이 중단된 동안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왔다”면서 “아직까지는 관객들이 마스크를 쓰고 공연을 보는데 이제 곧 마스크까지 벗고 얼굴 보며 소통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배우 김영환 씨는 “백신 접종률이 70%가 넘으면서 관객들도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면서 “연말연시에는

3



1 11월 3일 서울 대학로의 한 소극장에서 연극 〈수상한 흥인소〉 배우들이 관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2 11월 3일 서울 대학로에서 관객들이 연극을 보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3 서울 대학로에 연극을 관람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한겨레

240석 규모의 공연장이 꽉 차면 좋겠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평소 공연문화를 사랑하던 관객 입장에서 반갑기는 마찬가지다. 연극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관객들은 상기된 표정으로 “너무 재미있고 좋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학로에 나와 연극을 관람했다는 한 젊은 연인은 “원래 연극과 공연을 자주 보러다녔는데 그동안 공연을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면서 “우리가 다시 공연장에 앉아서 연극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설레고 흥분됐다. 이제야 제대로 데이트하는 느낌”이라고 말하며 경쾌한 발걸음을 옮겼다.



취식 가능해진 극장가

11월 첫 주 극장가도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서울 대학로 CGV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기 위한 관객들이 삼삼오오 입장하고 있었다. 대학로 CGV는 10개 상영관 중 3개의 '백신(방역)패스관'을 운영하고 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는 코로나19 이전처럼 극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방역패스관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치고 14일이 경과한 관객만 입장할 수 있는 상영관이다. 방역패스관에서는 팝콘이나 핫도그 등 음식물 취식이 가능하며 띄어 앉기가 해제된다. 일반 상영관은 종전대로 좌석간 띄어 앉기가 적용되며 음식물 섭취가 불가하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객은 일반 상영관과 방역패스관 모두 선택이 가능하다.

황재현 CJ CGV 커뮤니케이션 팀장 "방역패스관은 20~30% 규모로 시작해 관객 반응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며 "백신 접종을 마쳤어도 타인의 음식물 섭취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관객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럴 경우엔 음식물 섭취가 안되는 일반 상영관을 선택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염 위험도가 낮고 코로나 19로 크게 어려움에 처한 업종을 중심으로 이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며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크게 반겼다.

방역패스관 운영, 영화는 역시 팝콘과 함께!

이날은 마블스튜디오의 <이터널스>가 개봉했기 때문인지 유난히 젊은 층의 관객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자동발매기를 통해 표를 발권한 후 음료와 팝콘을 사서 영화관으로 입장했다.

친구와 영화를 보러 온 박 모씨는 "평소 좋아하던 영화를 보기 위해 친구와 함께 왔는데 방역패스관이 있다고 해서 콜라와 팝콘을 샀다"며 "정말 오랜만에 극장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본다. 그래서인지 영화가 더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11월 첫 주 CGV의 관객수는 전주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황 팀장은 "11월 첫 주의 관객수는 10월 마지막주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과 동시에 방역패스관 도입, 유명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 시점이 맞물려 더 큰 효과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기대작이 개봉하면 회복세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터널스>에 뒤이어 11월 18일 웨스 앤더슨의 <프렌치 디스패치>, 24일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엔칸토: 마법의 세계>가 스크린에 걸린다. 우리나라 영화도 준비하다. 11월 10일 장혁과 유오성 주연 액션누아르 <강릉>이 개봉한 데 이어 17일 류승룡 주연 코미디 <장르만 로맨스>, 24일 윤계상 주연 추적 액션 <유체이탈자> 그리고 전종서와 손석구 주연 <연애 빠진 로맨스> 등이 준비 중이다.

황 팀장은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 관객수를 기록하는 한 달을 기대하고 있다”며 “대유행이 잠시 주춤했던 2020년 8월에 세운 880만 명이 최고 기록인데 11월에는 그 수준을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극장가의 이런 분위기 전환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내놓은 소비쿠폰도 한몫하고 있다. 203만 명에게 6000원 할인권(주당 1인 2매·복합상영관 기준)을 지급해 저렴한 가격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적용되는 영화관은 멀티플렉스를 비롯해 독립·예술영화관, 작은 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 전국 521곳이다.

공연(연극,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분야에서도 온라인 공연 관람시만 적용되던 ‘소소티켓’이 11월 1일부터 오프라인



4 11월 3일 대학로 CGV에서 무인발매기에서 사람들이 표를 발견하고 있다. 5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첫날인 11월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이 팝콘과 음료를 구입하고 있다. 방역패스 도입 시 취식을 허용함에 따라 점종 완료자는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를 먹을 수 있다. 1 연한 6 11월 3일 서울 대학로 CGV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공연으로 전면 확대됐다. ‘소소티켓’은 소중한 일상, 소중한 문화티켓이라는 뜻으로 8000원 할인권을 2주마다 온·오프라인 합쳐 1인 4매씩 받을 수 있으며 회차당 1장(1만 원 이상 공연시)씩 사용할 수 있다.●

글·사진 김민주 기자



11월 첫 주 서울 광진구 먹자골목이 밤문화를 즐기려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제야 먹자골목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네요”

손님이 돌아오고 있는 식당가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했다. 이제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 영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돼 24시간 영업을 가능하다. 단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 제한하며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가능하다. 그동안 자제했던 친구들과 모임, 회사 동료들과 회식 등 다양한 사적 모임들도 가능해졌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며 손님이 없어 한숨만 쉬던 자영업자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첫 주 서울 광진구 먹자골목과 서대문구 홍대입구를 찾아 다시 찾은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봤다.



대학가와 직장인들이 모여 있어 저녁 모임과 회식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광진구의 먹자골목.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11월 첫주 이곳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흥에 겨운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시끌벅적했다.

고깃집과 맥줏집 등에서는 '24시 영업' 간판에 불을 환하게 켜놓았고 치킨집과 포장마차 등에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단체로 회식과 모임을 갖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식당들은 분주하고 활기가 넘쳤고 주방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손님들의 체온에 유리창은 김이 하얗게 서려 있었다.

먹자골목에서 오랜기간 치킨집을 운영하던 최 모 씨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는 손님이 없는 텅빈 가게를 지키며 한숨만 쉬고 있었다"면서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난 뒤 가게에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난 뒤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

덕분에 나도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다."

들어오는 손님들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 덕분에 나도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다"고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친구 모임에 심리적으로 편해졌어요"

한 치킨집에서는 6명의 일행이 한 테이블에 앉아 모임을 하고 있었다. 오랜만에 모인 이들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이었다. 이번 모임을 주도한 일행 중 한 명은 "사실 그동안에는 모임을 하고 싶어도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못했고 '코로나 끝나면 얼굴 한번 보자'는 말이 서로의 인사였다"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의 안부도 묻고 편안하게 술도 마실 수 있으니 너무 좋다"며 일행에게 기분 좋은 건배를 제안했다.

7명 정도의 인원이 맥줏집으로 우르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모임이냐고 물었더니 대학 동기들이라고 답했다. 과거에는 4명씩 떨어져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었던 이들에게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이후 변화를 체감하는지 물었다. 일행 중 한 명인 서 모 씨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졌다. 다들 백신을 맞았기 때문인지 이제 전처럼 걱정되지도 않고 심리적으로 편해졌다"면서 "주위 친구들 대부분 인원내 상관없이 식당과 호프집 등을 편하게 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골목 안쪽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노 부부는 "그동안 가족, 친구끼리 식당에 왔어도 떨어져 앉아 밥을 먹고 눈치 보느라 서로 대화조차 안하며 밥만 먹는 모습을 보면 무척 속이 상했다"면서 "식당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가 좋은 사람들끼리 즐겁고 맛있게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이제는 식당에 오는 손님들이 함께 모여 앉아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으니 너무 속이 후련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거리는 단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목격될 정도로 달라진 풍경이 펼쳐지고 있



1 11월 5일 서울 광진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이 편안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다. 2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된 11월 첫 주 서울 광진구 먹자골목의 한 식당에 '24시 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걸려 있다.

“손님들이 3~5인 정도는 편안하게 들어오고
저녁시간에는 항상 만석이 된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도 분위기가 적응이 되면
단체로 움직이는 손님들이 늘어날 것 같다.”

다. 홍대건교교에서 15년째 한식당과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세권 씨는 1년 여 만에 다시 가게 문을 열어 기대감을 드러냈다.

“너무 기쁩니다. 그동안 밤 9시, 밤 10시 등으로 묶였던 영업시간 제한은 타격이 컸어요.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가장 강력하게 풀어달라고 요구했던 이유죠.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요.”

박 씨는 오랜 기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 없었던 터라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을 그 누구보다도 반겼다. 그런 만큼 10명 인원 제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영업시간 제한 폐지로 인해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인원 제한은 영업에 걸림돌이에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순조롭게 이뤄져 2단계, 3단계 때는 인원 제한도 완전히 해제됐으면 하는 게 모든 자영업자의 바람입니다.”

직원 구인난으로 '24시간 운영'은 아직

광진구 먹자골목에서 150석 규모의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손님들이 3~5인 정도는 편안하게 들어오고 저녁 시간에는 항상 만석이 된다. 하지만 아직 이전처럼 10명 정도의 단체 손님이나 예약은 잡히지 않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도 분위기가 적응이 되면 단체로 움직이는 손님들이 늘어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 고깃집은 영업시간 제한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24시간 장사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밤새워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고깃집은 코로나19 이전에

“동창회는 행사 아닌 사적모임… 인원제한 지켜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1월 10일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적모임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 10명 및 비수도권 12명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행사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법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행사의 참여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로 확대했다.

행사는 법적 단체 주관 및 결혼식·장례식·피로연·돌잔치 등을 포함해 사회적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그리고 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와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행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11월 1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 한겨레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 반장은 “연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모임이 늘어나고 있다”며 “사적모임과 행사의 구별에 혼선이 있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행사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는 15명 정도의 직원을 두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손님이 줄어든 탓에 6명의 직원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직원을 다시 뽑으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김 대표는 “구인 광고를 계속 하고 있지만 쉽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24시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 다른 식당들도 역시 구인난으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었다. 경기 의정부에서 300석 규모의 대형 참숯불구이 식당을 운영하는 박삼수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권고사직을 권하는 등 직원들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며 “매장을 24시간 운영하려면 지금보다 8명 이상의 직원을 더 구해야 하는데 한달 전부터 구인광고를 냈어도 일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다”며 “부족한 인원으로 밤샘 운영을 하면 손님들에 대한 서비스가 나빠지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다른 식당들도 비슷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

이에 대해 한국요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달라져 업계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다른 직종에 취직을 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 상황이 안정되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생각지 못했던 구인난으로 24시간 영업이 아직은 불가능한 곳이 많지만 그래도 매출이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영업자에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박 대표는 “11월 첫 주가 시작되면서 매출이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다. 물론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그래도 손님들이 이제 10명씩 단체로 오고 주말 단체 예약 문의도 많이 오고 있다. 때문에 상황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글·사진 김민주 기자

시장에 고객센터 생기니... 소비자·상인 '좋아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용답상가시장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전통시장 등 지역상권도 기지개를 펴고 있다.
서울 성동구 용답상가시장이 대표적인 예다. 오래된 전통 상가시장이지만 시설 현대화로 경관이
달라져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모범사례인
용답상가시장에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희망을 찾아봤다.

2021년 11월 7일 오후에 서울 성동구 용답상가시장을 찾았다. 상가 인근에 있는 용답동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장 골목으로 들어서니 '상가시장'이라는 특이한 단어 조합이 금방 이해됐다. 용답상가시장은 상가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을 품고 있다. 도로 폭이 넓고 하늘이 열

려 있어 지붕이 덮여 있는 일반 전통시장보다 탁 트인 느낌이 들었다. 시장 골목을 걷다 보면 지하철역과 맞닿아 있고 주택과 가까워 사통팔달하다. 휴대전화 매장, 노래 연습장, 약국 등 생활편의시설은 물론 음식점, 고춧가루, 두부 등 전통시장 품목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2011년 개설된 용답상가시장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용답역과 5호선 답십리역 인근에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 약 1만 5821㎡ 면적으로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김병옥 용답상가시장상인회 회장은 “약 180개의 점포가 있고 하루 이용자가 약 5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예전에는 전통시장과 상가에 각각 상인회가 있었지만 작은 모임 수준에 불과했다”며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뜻에서 상가와 전통시장이 합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회원이 많이 이해해주지만 처음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단체가 합치다 보니 중심 잡기가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고객센터 생기고 상인회 활동 더 활발

2021년 7월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가 문을 열었다. 그동안 싼 가격이 장점이었던 전통시장과 고객센터는 쉽게 연상되지 않는 단어다. 하지만 전통시장도 이제 서비스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성동구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20년 건물을 사고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고객센터를 만들었다. 2017년 마장축산물시장, 2021년 왕십리도선동상점가에 이어 세 번째 고객센터다.

당장 큰 변화는 임대료 등의 이유로 반지하에 있었던 상인회 사무실이 고객센터로 이전하면서 상인회 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여기 오기 전에는 10년 넘게 지하에서 상인회를 운영했는데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더워 참석해달라고 말하기가 미안했다. 업무는 큰 차이 없지만 일단 환경이 좋아졌고 상인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고객센터를 통해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서



1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휴게실 2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 성동구청
3 고객센터 안내판

고객센터 건물 1~2층에는 고객센터, 상인회사무실, 다목적실 등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5층 교육실은 상인들의 교육과 행사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전경

비스를 제공하도록 우리 상인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답상가시장은 2020년 서울시가 시행하는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돼 고객센터 3~4층에 용답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들어서 있다.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 재생사업은 기존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지 내 쇠퇴한 전통시장을 도시 재생의 중요한 공간 요소로 보고 시장 활성화와 주거지 재생을 결합해 마을 과 시장 간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처럼 새것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지역의 장점을 강화해 지역 환경·경제·사회·문화를 개선 하는 사업을 말한다.

김 회장은 “우리 시장은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해 경기를 크게 타지 않았지만 뚜렷한 특징이 없이 모호한 이미

지”라며 “도시재생사업이 끝나는 2024년까지 우리 시장 이 부족했던 점을 많이 보완해 지역을 대표하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설 현대화해 고객에 편의 제공

고객센터 건물 1~2층에는 고객센터, 상인회사무실, 다목적실 등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설치했고 5층 교육실 은 상인들의 교육과 행사를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층 공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잠시 들어와 책장에 꽂혀 있는 책을 읽을 수 있고 잠시 쉴 수도 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남녀 화장실은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청소한다. 고객센터 2층 상인회 사무실

성동구는 인근 주민센터와 연계해 시장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네 예술가를 통해 시화전·전시회도 개최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용자에 한해 장소를 무료 대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모니터가 있다. 상가시장 곳곳을 비추는 CCTV가 설치돼 있어 상인과 고객들 모두 안심하고 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성동구는 인근 주민센터와 연계해 시장 방문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동네 예술가를 통해 시화전·전시회도 개최해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용자에 한해 장소를 무료 대관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시장 방문자와 상인 모두 교류하고 즐길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방침이다.

용답상가시장은 고객센터 외에도 시설을 현대화해 고객 편의를 제공한다. 용답상가시장 중앙에 있는 디지털 게시판도 그 하나다. 메뉴에서 전통시장을 누르면 용답상가시장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가 표시된다. 용

답상가시장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또 내가 찾고자 하는 가게의 위치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로변 입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대로변과 가까워 시장을 방문한 고객들은 곧장 차를 주차하고 시장을 둘러볼 수 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1시간에 1200원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은 80%, 경차 등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별도의 공영주차장도 마련돼 있다. 주차면수 16면 규모인 무인 자동화시스템으로 인접 지역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친환경 소재인 잔디블럭을 설치해 바닥을 포장했다. ●

글·사진 이찬영 기자

전통시장 현대화로 지역경제 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고객편의시설 건립과 노후 시설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 활성화 구역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 협약이 체결된 곳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사단·재단법인 등 상인 조직이 있어야 한다.

주차장, 진입 도로, 아케이드 등 고객 접근, 편의시설 설치와 시설물 개보수(전기·가스·소방시설 등의 교체·개량) 등 노후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또 테마 거리 조성과 홍보시설(거리 정비·홍보·상징 조형물 등) 설치, 배달센터(택배시설), 고객 쉼터, 자전거 보관소 등 문화·편의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중기부 정책담당자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해당 시장과 관련된 시설과 인프라 지원이 대부분 포함된다"며 "다만 2020년부터 예산 규모가 큰 주차장 지원 사업 외 항목은 모두 자치단체로 이양된 상태"라고 말했다. 주차장 지원의 경우 토지 매입과 건축 등 건수는 적

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중기부에서 관할한다는 설명이다. 2021년 8월 중기부가 발간한 '소상공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해 2019년까지 413개 주차장에 7004억 원을 지원했다. 2020년에도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 95곳에 1398억 원, 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운 27곳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 12억 원 등을 지원했다.

2015~2019년 주차장 건립이 완료된 108개 시장을 대상으로 지원 성과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건립 전보다 고객은 25.0%, 매출은 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전국 1413곳이 운영 중이며 20만 7000개의 점포에서 34만 2000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24개 전통시장이 줄었고 상인은 약 1만 7000명 감소해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다. 반면 매출액은 2014년 처음으로 반등해 2019년까지 지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브랜드K 선정돼 고객 신뢰 높아졌어요”

브랜드K 제품체험관 가보니

훌륭한 기술과 노력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보다 힘 빠지는 일이 있을까?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는 2019년 9월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를 내놓고 기술력은 뛰어난데 인지도가 낮아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제품에 브랜드K를 부여해 인지도 상승을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11월 11일 서울 코엑스에 브랜드K 제품체험관(플래그십스토어)을 개장하고 브랜드K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제품체험관 개소식과 함께 진행된 브랜드K 제품 체험현장을 다녀왔다.



1 브랜드K 제품체험관(플래그십스토어)이 개장한 11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전광판에 브랜드K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다. 브랜드K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품의 국가 인증 브랜드다. | 문화체육관광부 2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1 K-박람회'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부 홍보관 (여)영풍 전시부스에서 업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2년, 브랜드K 제품 300개 확대 예정

해외 무역상(바이어)과 관광객들의 이동이 많은 서울 코엑스 동문 로비. 11월 11일 오후 이곳에서는 브랜드K 제품체험관 개소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여진구 배우(브랜드K 광고모델) 등이 참석했다. 사회자의 행사 시작을 알리는 외침과 함께 파란색 휘장이 걷히고 브랜드K 제품들이 진열된 제품체험관이 멋진 모습을 드러냈다.

실내 매장 형식으로 마련된 제품체험관(126㎡)은 브랜드K의 국가대표 이미지를 형상화해 스타디움 형태로 꾸며졌으며 스테어존, 키오스크(무인결제기), 대형화면, 진열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계단으로 설치된 스테어존에서는 제품을 편하게 구경하거나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도 있다. 키오스크를 통해서도 브랜드K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해당 제품의 온라인몰로 들어가 제품도 구매할 수 있다.

대형화면은 발광다이오드(LED) 스크린을 통해 브랜드K 광고물과 제품 체험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으며 양 옆으로 마련된 진열대에는 브랜드K 이름을 부여받은 중

소기업 제품 30여 개가 진열돼 있는데 이 상품은 분기별로 바뀐다. 2019년 브랜드K 국가대표 공동상표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브랜드K에 선정된 제품은 총 203개며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계획이다.

권칠승 장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2022년에는 브랜드K 제품을 300개까지 확대하겠다”며 “수출바우처, 온라인수출지원 사업 등과 연계를 강화해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도 지속하겠다. 볼거리가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브랜드K 플래그십스토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브랜드K 선정 이후 바이어들 반응 기대

코엑스 로비 한쪽에는 브랜드K 제품을 직접 시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실외 팝업 홍보관(135㎡)도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는 브랜드K에 선정된 업체 관계자들이 방문객들에게 직접 시연해주며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날은 모노클로트홀딩스의 파운데이션 스틱, 팜스킨의 크림, 스마트 카라의 음식물 처리기 등 3개 제품에 대한 체험 행사가 열렸다.

정부가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에 선정된 업체들에 해외 판로 진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점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파운데이션 스틱을 손등에 바르면 스틱이 녹으면서 피부에 스며들거든요. 사람마다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색상을 찾아서 쓰면 됩니다.”

제품 시연 관계자의 모습을 흥미있게 바라보던 손님이 자신의 손등에도 조심스럽게 발라보더니 “와~ 색깔이 부드럽고 은은하게 나와서 정말 좋네요”라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어 제품 판매자는 “우리나라에서 선크림을 쿠션화(스펀지를 피부에 짝 바르는 스타일)시킨 게 저희가 최초”라며 선크림도 손님에게 권했다. 이에 손님은 “쿠션화 된 선크림이 워낙 유명해서 잘 안다”며 “직접 발라보니 편리하다. 앞으로는 선크림을 쿠션 스타일로 구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모노글로트홀딩스는 국내 홈쇼핑 등에서는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화장품 업체다. 그동안 해외 전시에도 자주 참여했는데 브랜드K에 선정된 이후에는 아직 해외 전시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심 기대하고 있다.

유양희 모노글로트홀딩스 뷰티사업본부 이사는 “우리 회사는 2022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못나갔던 해외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브랜드K의 로고를 붙이고 처음 나가는 외부 전시이기 때문에 현지 바이어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정말 흥분되고 설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브랜드K에 선정이 되고 난 뒤에는 주변 사람들과 고객들에게 더 신뢰받는 느낌이 들었다”며 “홈쇼핑 진행자들은 브랜드K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방송 중 홍보 문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은 ‘브랜드K가 뭐냐, 더 좋은 거냐’ 등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 판로 진출 도움 받아 좋아요”

음식물 처리기 업계 1위인 스마트 카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일류상품’과 ‘베스트소형가전 최우수제품’, 중기부 ‘ 으뜸중기제품’ 등 여러 가지 인증은 물론, 국내 최초로 환경부 ‘친환경 마크’를 획득하며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 2019년 브랜드K까지 선정된 이후 업체의 대내외 자랑거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고객들 반응도 더 좋아졌다.



3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여진구 배우(왼쪽부터)가 음식물 처리기 업체인 스마트 카라 코너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4 브랜드K 제품체험관 개소식에서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브랜드K에 선정된 업체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게 사업의 목적이다. 선정 업체에 대한 해외 전시 참여는 물론 유통이나 해외 수출연계 지원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오히려 매출이 더 증가하고 있다. 배승운 스마트 카라 영업부 과장은 “브랜드K 선정 이후 코로나19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밥을 해먹으니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 자연스럽게 음식물 처리기 판매량도 증가했다”며 “고객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브랜드K에 선정된 업체들에 해외 판로 진출을 지원해주고 있는 점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배 과장은 “브랜드K에 선정된 이후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며 “특히 아직 수출을 못하고 있는 나라의 현지 바이어와 수월하게 연결되도록 도움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세계에 저희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초유와 식물성 단백질을 결합해 만든 화장품 업체 팜스킨은 그동안 자사몰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오프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했다.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다는 게 무척 큰 행운이다. 곽태일 팜스킨 대표는 “브랜드K에 선정 되고 나니 코엑스 행사장에 나와서 제품을 홍보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브랜드K에 선정된 제품들이 다양한 광고를 통해 많이 홍보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랜드K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강수문 대외협력실 팀장은 “중소기업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브랜드K에 선정된 업체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게 사업의 목적”이라며 “선정 업체에 대한 해외 전시 참여는 물론 유통이나 해외 수출연계 지원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 김민주 기자, 사진 박윤섭 기자

“브랜드K 제품을 명품 브랜드로” 홈쇼핑·온라인몰 활용 판로 지원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K’에 선정된 업체들은 국내외 제품체험관을 통한 홍보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유통센터 자체 채널 및 외부 홍보매체를 통한 브랜드K 기업과 제품의 홍보는 물론, 인플루언서(누리소통망 영향력자) 등을 활용해 홍보 이벤트기획·행사 참여·체험후기 게시 등 홍보를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과 한류 강세 신흥시장의 현지 온라인몰 내 한국관 입점을 지원하고 케이콘(KCON) 등 한류 행사 때 브랜드K 홍보관을 구성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촉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내 주요 전시박람회와 대규모 판촉행사 때 브랜드K 홍보관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오프라인 기획전(대형유통채널 및 정책 매장 연계) 등을 통한 판촉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홈쇼핑 및 온라인몰 활용 판로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공영홈쇼핑 및 민간홈쇼핑을 통한 방송판매 연계지원과 홈쇼핑 진

행자 대상 구매상담회 추진 등을 통한 홈쇼핑 판로도 지원한다. 민간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브랜드K 기획전 및 소상공인전용플랫폼 ‘가치샵시다’ 등 온라인 판로도 지원한다.

11월 11일 브랜드K 플래그십스토어 개소식에는 브랜드K 상품 중 카오프랫폼을 활용해 매출 및 인지도가 상승한 대표 제품들 중 생활용품전문 브랜드인 군달의 카카오쇼핑 라이브커머스(실시간판매)도 1시간동안 열렸다. 또한 공영홈쇼핑에서는 브랜드K 코엑스 플래그십스토어 개소식을 3시간 특집 방송으로 진행하면서 브랜드K에 선정된 3개의 제품을 소개·판매하고 코엑스 현장을 직접 연결해 제품 시연을 방송하기도 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날 세 시간 특집방송은 브랜드K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며 “브랜드K 제품들이 국가대표 명품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즐거로운 탄소중립 생활 홍화정 그림

45. 일상을 가볍게, 탄소배출도 가볍게



오늘은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함께 대청소를 하기로 한 날.



육아와 집안일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집에 물건이 가득 쌓여



날을 잡아 집안을 정리하기로 한 것이지요.



아이 물건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와 남편의
쓰지 않는 물건 역시 많았습니다.



저희는 깨끗한 옷과 책, 잡화를 모으고



기부 가능한 물건들만 골라



재사용 나눔가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기부한 내역은 국세청에 등록돼 연말에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고,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함부로 버려지는 물건 없이 자원이 선순환 되니



이게 바로 일석삼조가 아닐까 싶어요. 😊





8월 15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특별수송기를 통해 국내로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옮겨지고 있다. | 청와대

홍범도 장군 귀환 막전막후 외교 빛났다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추진 배경과 주요 성과 등을 쉽고 친근하게 소개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이 지닌 시대적 의미를 국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 재조명합니다.

K-방역,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선도경제, 신한류, 한반도 평화 분야의 주요 성과를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이번 호는 100년 만에 독립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이야기입니다. <편집자 주>

100년 만의 귀향 홍범도 장군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영화 콘텐츠를 쇼핑하다가 우연히 영화 <봉오동전투>를 보게 됐다. 학창 시절 역사 교과서에서 봤던 낯익은 단어에 그만 재생 버튼을 누른 거지. 일제강점기(1910~1945년)인 1920년 6월 만주 봉오동에서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해 대승을 거둔 우리 독립군의 전투를 그린 영화야. '봉오동전투' 하면 '홍범도 장군'이 곧장 떠오르지? 대

한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봉오동전투를 지휘해서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최초의 승리를 거둔 전설의 인물!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정작 홍 장군은 엔딩 장면엔 잠깐 등장한다는 거야. 홍 장군 역을 맡은 배우 최민식은 짧은 출연에도 봉오동전투를 지배했던 장군의 기백을 여실히 느끼게 해줬어. 그런데 홍 장군이 봉오동전투 뒤 죽은 영혼이 돼서도 타향을 떠돌다가 100년 만에 귀향한 사실, 알고 있어? 살아서 그렇게 바랐던 독립된 고향의 품으로.

홍 장군의 귀환은 30년 걸친 노력의 결실

2021년 8월 15일 광복절 저녁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향.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한 공군 특별수송기 한 대가 전투기 6대의 엄호를 받으면서 저녁 7시 30분 무사히 활주로에 착륙했어. 이어서 군악대 성악병의 독창곡 ‘올드 랭 사인’이 흘러나왔어. 이 노래는 1896년 11월 독립문 정초식에서 배재학당 학생들이 합창한 것을 계기로 독립운동가 사이에서 국가처럼 불리던 노래야. 의장대 호위 속에 태극기로 고이 감싼 관이 특별수송기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어. 바로 홍범도 장군 유해였어.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공향에 나와 분향 및 묵념을 하면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홍 장군의 귀향을 맞이했어. 장군의 유해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온 거야. 장군이 마지막 여생을 보내다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곳이지.

홍 장군 유해 봉환은 문 대통령이 2019년 4월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때 카심-조마르트 토크아예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어. 원래는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인 2020년에 유해를 봉환하려고 했어. 실제 그 해 3·1절 문 대통령이 유해봉환 결정을 공표하기도 했고.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약 없이 연기돼 오다가 2021년 8월 토크아예프 대통령이 재방한하면서 그 결실을 보게 됐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21년 8월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범도 장군의 귀환은 30여 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이라면서 홍 장군 유해봉환 과정에서 벌어진 우리 정부의 총력 외교전 뒷얘기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어.

정부는 2021년 8월 16~17일 이틀간 국민 추모 기간을 거쳐 홍 장군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해 안장했어. 카자흐스탄에서 숨을 거둔 지 78년 만에 고향 땅에 묻힌 거지. 문 대통령은 홍 장군 안장식 추념사에서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 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라고 말했어. 그런데 홍 장군의 유해는 왜 긴긴 세월을 돌고 돌아 카자흐스탄에서 오게 된 걸까?

대한민국 독립군 역사의 첫 승리 ‘봉오동전투’

홍 장군은 1869년 8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읜 홍 장군은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삶을 이어갔어. 한때 식발승이 되기도 했던 홍 장군은 총숨씨를 인정받아 포수의 길로 들어서게 돼. 첩첩산중에서 살던 장군의



9월 10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내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어린이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은 문 대통령이 2019년 4월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때 카심-조마르트 토크아예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어.

인생을 바꾼 건 1895년 을미년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들의 칼에 무참히 살해당하면서야. 이때부터 산포수들을 규합해 의병 활동에 나서게 돼.

홍 장군은 뛰어난 사격술로 일본군을 소탕해서 ‘날으는 장군 홍범도’라는 별명을 얻어. 일본군에겐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지. 러일전쟁에서 승리(1905년)한 일본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5년 뒤 1910년 나라를 빼앗자 홍 장군은 국경을 건너 만주와 연해주에서 본격적인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해. 대한독립군을 결성해 총사령관에 올라 조국의 명운을 건 역사적 전투에 나선 거지.

1920년 경신년 6월 7일. 만주 봉오동 계곡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 왔어. 상대는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편성된 일본군 정예부대 월강추격대! 봉오동 계곡에 미리 매복한 독립군연합부대는 봉오동 상촌으로 일본군을 유인해서 협공을 펴부었지. 전열이 급격히 무너진 월강추격대대는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완전히 패퇴했어. 이날 전투는 대한민국 독립군 역사에서 첫 승리로 기록됐지.

봉오동전투의 승리를 발판 삼아서 넉 달 뒤인 19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8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고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하관을 지켜보고 있다. | 청와대

또 다른 승전보가 전해지는데 이 전투가 바로 청산리대첩이야. 홍 장군은 김좌진 장군과 연합해 보복전에 나선 일본군을 크게 무찌르지.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일본군이 간도 지역 한인 수천 명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사건(간도참변, 1920~1921년)이 발생하면서 홍 장군의 항일무장투쟁도 시련을 맞게 돼. 그리고 이후 중일 간의 만주사변에 얽히기 싫었던 러시아가 1937년 일본과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극동지역의 고려인을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어. 이 열차에 몸을 실은 홍 장군도 결국 카자흐스탄으로 흘러들어가 비극적 말년을 보내게 되지. 그러다가 1943년 머나먼 이국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해.

2021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조국 품으로

홍 장군이 여생을 보낸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는 지금도 그의 생가와 묘역이 보존돼 있어. 이 근처엔 '홍범도 거리'도 조성돼 있다고 하지. 홍 장군의 강인한 기백은 우리 군의 살아

있는 무기에도 깃들어 있어.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한 1800톤급 최신에 잠수함 홍범도함은 2018년에 실전 배치돼 동해안 바다를 지키고 있지. 육군사관학교는 2018년 제99주년 3·1절을 기념해 생도들이 훈련에 사용한 탄피 300kg(5만 발)으로 홍 장군의 흉상을 충무관 앞에 설치해 그가 보여줬던 불굴의 투쟁정신을 기렸어.

2021년 8월 15일 꿈에 그리던 독립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홍 장군은 살아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10권 분량의 민족서사시 <홍범도>를 완결한 이동순 시인은 긴 독립 여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 이 시구를 마음속으로 낭독하면서 조국독립을 향해 이름 없이 젊음을 바친 무명용사의 잊힌 삶을 한 번쯤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

“나 홍범도! 고국 강토에 돌아왔네. 저 멀리 바람 찬 중앙아시아 빈 들에 잠든 지 78년 만일세. 내 고국 땅에 두 무릎 꿇고 구부려 흠뻑세 말아 보네. 가만히 입술도 대어 보네. 고향 흙에 뜨거운 눈물 똑똑 떨어지네.” ●

김정필 <한겨레> 기자

의병부터 독립군까지... 항일투쟁 선봉

홍범도 장군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1895년)이
발발하자 의병부대를 조직해
강원도·평안도 등지에서 게릴라전을 벌였어요.
뛰어난 사격술과 신출귀몰한 유격전술로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죠!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대승

1919년 대한독립군을 조직해
만주 봉오동 골짜기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렸고,
*일본군 157명 사살, 독립군은 4명 전사(해방 이후 1920.12.25.)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도
역사에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둬들입니다.



최고의 예우 속 장군 유해봉환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특사단을 파견해
장군의 유해를 모셔 왔습니다.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타국에서 생을 마감한 홍범도 장군,
국립대전현충원에 편히 모시고
그 공적을 오래도록 기리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추진 경과	
1943년 10월 25일	홍범도 장군,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서거
1995년 3월	정부조사단, 홍범도 장군 묘소 조사 및 유해봉환 추진
1996~1997년	국가보훈처, 홍범도 장군 묘역 정비사업 5회 지원
2017년 7월 7~15일	국가보훈처, 카자흐스탄 묘소 실태 조사 추진 당시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 관계자 등과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관련 논의
2019년 4월 22일	문재인 대통령,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당시 카심-조마르트 토크야예프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협조 요청. 문 대통령 "홍범도 장군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영웅적인 인물이며 내년은 홍범도 장군이 활약한 청산리·봉오동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늦어도 2020년까지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봉환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
2019년 9월 16일	한·카자흐스탄 외교부 장관 회담, 유해봉환 관련 한국 정부 입장 전달
2020년 3월 1일	문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발표. 문 대통령 "평민 출신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됐다. 봉오동전투 100주년을 기념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조국으로 봉환해 안장할 것이다"고 발언
2020년 3월 8일	청와대, 유해봉환 연기 발표.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양국 간 논의되어 오던 토크야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이 코로나19 관련 상황으로 연기됐다. 양측은 토크야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연내 재추진하기로 했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은 토크야예프 대통령 방한 시 함께 추진될 것이다"고 언급
2020년 6월 7일	문 대통령,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 기념 메시지를 통해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재천명
2021년 8월 12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확정 발표
2021년 8월 15일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2021년 8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

“안전한 여행으로 소중한 일상 회복하세요”

‘2021 여행가는 달’ 주요 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의 여행은 코로나19 이전 여행과 차이가 있다.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안전’에 방점을 찍고 여행의 즐거움을 맛보는 게 핵심이다. ‘2021 여행가는 달’ 일환으로 정부가 마련한 각종 프로그램 및 여행 시 유의할 점 등을 알아본다.



인천 소무의도 풍경 | 인천 중구

✓ 여행 시 ‘주의할 점’ 반드시 체크하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는 중에도 여행지에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 계획을 짤 때 가급적 가족 또는 소규모 단위로 혼잡하지 않은 날짜와 시간을 잡아 한적한 장소로 떠나는 게 좋다. 사전예약과 예매를 우선으로 하고 비대면 결제와 비대면 탑승 수속도 적극 활용하길 권한다.

5인 이상 단체 여행 시에는 더 특별한 방역 관리가 요구된다. 이 경우에는 방역 관리자를 별도 지정한다. 단체 합성이나

노래, 음주 등을 자제하고 일행끼리도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단체 식사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여행가는 달’과 관련해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자와 관광 접점에서 만나는 관광종사자 모두를 위한 안전여행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 3000명을 배치해 관광지와 관광시설에 대한 방역과 안전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호텔과 콘도, 유원시설 약 5000곳에서 방역물품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한 여행 캠페인과 관광지 방역 인력 배치, 방역물품 지원은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 참고하라!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가 안전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을 참고하면 좋겠다. 코로나19 시대 다른 여행객들과 여유롭게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지를 선별했다. 서울 근교에 살고 있고 부담 없이 가벼운 산행을 해보고 싶다면 서울 도봉구 도봉산둘레길을 가보길 권한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걷다 보면 나타나는 전망대에서 탁 트인 경치를 맞볼 수 있다.

바람 맞으며 작은 섬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인천 중구 소무의도 내 총 8구간으로 이루어진 무의바다누리길은 약 2.5km의 해안 탐방로를 따라 가볍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게 꾸러냈다.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때에는 0.75km의 바다길을 따라 해안트레킹도 할 수 있다. 해안 절벽과 기암괴석 등 뛰어난 자연경관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경기 고양 고양대덕생태공원, 강원 삼척 활기 치유의 숲, 충북 영동 양상팔경 금강둘레길, 경북 울릉 신령수가는 길, 제주 서귀포 하영올레 등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가을편)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을 참고하면 된다.

지리산 뱀사골 단풍 풍경 | 전북 남원시

✓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잡아라!

2021 여행가는 달에도 교통, 숙박, 여행 상품 등 각종 할인은 풍성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여행가는 달 기간 동안 고속철도(KTX) 왕복권과 관광지 입장권이 결합된 관광 상품을 1만 8000명에게 특가(할인율 20~40%)로 판매한다.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코버스)에서는 '여행가는 달' 일정 기간 중 고속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여행가는 달 고속버스 프리패스(3일권~7일권)'를 1만 명에게 3만 5000원씩 할인해 판매한다.

한편 온라인을 통해 국내 숙박상품 예약 시 7만 원 이하는 2만 원 할인, 7만 원 초과하는 3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할인권도 배포한다. 여행상품을 예약하면 최대 40%까지(최대 16만 원) 할인해주는 여행상품 묶음 할인도 놓칠 수 없다.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이벤트도 풍성하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국내여행을 즐기는 인증 사진과 여행지 정보, 나만의 안전여행 즐기는 법을 개인 누리소통망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한 다음 여행가는 달 누리소통망 이벤트 게시글에 주소를 올리면 된다. 1등(5명) 국민관광상품권 50만 원, 2등(50명) 국민관광상품권 10만 원, 3등(100명) CU편의점 상품권 5000원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

김청연 기자

2021 여행가는 달 주요 할인 및 행사 내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세부 계획
이동하기	내용 : 전국 관광지 입장권 + KTX 왕복 탑승권 결합상품의 KTX 운임 50% 할인(1.8만 명) 판매기간 : 11.8~11.30 사용기간 : 11.8~12.7
	철도 할인 (10억 원) <관광열차 할인> 내용 : 할인을 60%(1.5만 명) - 6개 노선 할인 판매 ※G-train(용산~익산), S-train(서울~여수엑스포), 동해산타(강릉~분천), 경북 관광(동대구~분천, 동대구~포항, 동대구~청도), V-train(영주~분천~철암, 분천~철암), 바다열차(강릉~삼척해변) 판매기간 : 11.8~11.30 사용기간 : 11.8~12.7
	고속버스 할인 (2.8억 원) 내용 : 1인당 3만 5000원 할인(1만 명) - 4개 권종 할인 판매 ※3일권(주말 포함) 8만 원 → 4만 5000원 4일권(주말 제외) 7만 5000원 → 4만 원 5일권(주말 포함) 11만 원 → 7만 5000원 7일권(주말 포함) 13만 원 → 9만 5000원 판매기간 : 11.8~11.30 사용기간 : 11.8~12.7
머물기	숙박 할인 (565억 원) 내용 : 7만 원 이하 2만 원, 7만 원 초과 3만 원 할인권 제공 (193만 장) 판매기간 : 11.1~12.23 사용기간 : 11.9~12.23
	품질인증업소 할인 (0.5억 원) 내용 : 품질인증 숙박업소 예약 시 50% 할인(최대 5만 원) 판매기간 : 11.10~11.26 사용기간 : 11.10~11.30
즐거기	여행상품 할인 (89억 원) 내용 : 여행상품(패키지) 40% 할인 제공(5.5만 장, 최대 16만 원) 판매기간 : 11월 중~12월 말 사용기간 : 11월 중~12월 말
	유원시설 할인 (10억 원) 내용 : 3만 원 이하 1만 원, 3만 원 초과 1.5만 원 할인(10만 장) 판매기간 : 11.8~11.30 사용기간 : 11.8~12.30
	야영장 할인 (1억 원) 내용 :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등록 야영장 예약 후 이용 완료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1만 원 지급(1만 명) 판매기간 : 11.8~11.30 사용기간 : 11.8~11.30
	근로자 휴가지원 (1억 원) 내용 : 근로자 휴가지원 '휴가샵' 내 상품 50%, 최대 5만 원 할인 판매기간 : 11.8~11.30 사용기간 : 11.8~11.30
	걷기여행 이벤트 (5.7억 원) 내용 : 두루누리 걷기길 완주(보행)자 상품 제공(1만 명) ※1개길 완주 5000원 상품권 지급(1인 최대 3회, 1.5만 원 가능) ※걷기왕 선발 : 1~50등 국민관광상품권 및 인증서 지급 (1인 최대 50만 원) 행사기간 : 10.15~11.30

☑ 6500억 금융지원 ☑ 4500km 코리아둘레길 ☑ K-콘텐츠 체험 “2022년엔 국내 관광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정을 체결한 싱가포르의 관광객들이 11월 1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 한겨레

문화부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관광업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2022년 관광기금 용자를 2021년보다 550억 원 늘린 649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4500km의 걷기길인 ‘코리아둘레길’ 조성을 2022년까지 마치고 광주·전라·부산·울산·경상남도를 연계한 남부권 관광개발을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관광 관련 박람회, 소규모관광축제 등을 열고 선제적으로 대규모 방한 관광 마케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2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제6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 여행으로 되찾는 소중한 일상, 관광산업 회복 및 재도약 방안’을 발표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이해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관광업계는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아 지금까지도 어려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 피해를 본 관광업계의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를 2021년 대비 550억 원 늘려 6490억 원 지원한다. 특히 이 중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에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특별용자를 2021년 500억 원의 2배인 1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또한 2020년부터 시작한 용자원금 상환유예를 2022년에도 추가 시행하고 금 융비용도 2022년 한 해 동안 일부 경감한다.

안전한 관광 활성화로 관광수요 회복

관광업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축된 관광 수요를 살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고 관광 수요 회복은 안정적 방역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초기에는 안전한 관광 활성화

관광업계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위축된 관광 수요를 살려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고 관광수요 회복은 안정적 방역 상황에서 지속될 수 있다.

화를 추진한다. 먼저 안전여행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관광지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특정 지점에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을 유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분산 유도의 일환으로 주제(테마) 기행 형식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해 숨어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들을 조명한다.

여행과 치유가 함께 하는 관광환경도 조성한다. 우리나라 가장자리를 따라 연결한 4500km 초장거리 걷기여행길인 코리아둘레길을 구축한다. 이미 개통한 ‘해파랑길(동해안, 2016년 5월)’, ‘남파랑길(남해안, 2020년 10월)’은 안내표지 확충, 지도 배포, 안내센터 구축 등을 통해 편의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인근 관광지 연계 특화상품 개발, 행사 개최 등으로 걷기여행에 재미를 더한다.

안전한 여행 분위기 속에서 소비 진작도 추진한다. 11월에는 ‘여행 가는달’ (8~30일)과 함께 ‘내나라여행박람회’, ‘관광산업일자리박람회’, ‘웰니스페스타’, ‘크루즈트래블마트’, ‘관광이음주간’ 등 관광 관련 박람회를 잇달아 개최해 관광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2022년 초에도 ‘2022 코리아 그랜드세일’, ‘관광기념품박람회’ 등을 이어간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서해랑길(서해안)’은 2022년 3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은 2022년 12월에 조성 완료할 예정이다. 생태관광센터, 해양치유센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국민들의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치유형 자연 관광지도 계속 조성한다. 이같은 대책으로 조속한 관광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2022년 말경에는 코로나19 이전의 국내 여행 수준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나라 고유 국가대표 관광콘텐츠 육성

방한 관광도 단계적으로 재개하고 각종 기반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한다. 11월 15일부터 우리나라와 격리 없는 여행이 재개된 싱가포르를 필두로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국가부터 점진적으로 격리 면제를 확대하고 유전자 증폭(PCR) 검사 횟수

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 사증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점차 복원하고 11월 말부터 지방공항 국제선 운영을 재개하는 등 국제선 항공과 항만 운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실제 방한 관광 회복 전에 선제적으로 방한 심리를 회복해 향후 국제관광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서산 머드맥스’ 등 재미있는 한국관광 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 시리즈와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인 손흥민 선수를 내세운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나라 관광 인지도를 높인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달고나 등을 담은 ‘K-박스’를 우리 문화 관심층에게 보내 한류에 대한 관심이 방한 관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의 국내 관광과 외국인들의 방한 관광 모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우리나라 관광 매력을 보여주는 차별적인 관광 콘텐츠다. 이에 따라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 관광 ▲세계 유일의 DMZ 평화관광 ▲세계 일류 K-방역 기반의 의료와 치유(웰니스) 관광 ▲사찰 체험(템플스테이), 태권도 체험(태권스테이) 등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국가대표 관광콘텐츠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제주, 부산 등 주요 관광지 외에도 관광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관광 기반시설을 만든다. 지역관광발전지수 등을 활용한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지역별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휴양·치유·일상여행 등 최근 여행 추세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한 남부권(광주, 전라, 부산·울산·경상남도)을 연계한 관광 개발을 추진(6858억 원, 71개 사업)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업계 피해 지원과 시장 활성화로 우선 시급한 국내 관광을 회복하고 방한 관광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며 “2025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500만 명을 유치하고 이들이 서울만이 아닌 전국 곳곳을 여행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관광의 매력을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정연 기자

자율주행 실험단지 자동차안전연구원 K-시티 완전자율주행의 꿈을 실현한다

10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는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돼 수많은 기업들이 관련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반복·재현 실험이 가능한 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차안전연구원 K-시티는 운전자 조작 없이 도착지까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운영하는 자율주행차의 각종 대응력을 실험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는 우리나라 첫 자율주행 실험단지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인재발굴,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과 기술교류 및 공동연구의 장 마련 등을 수행해 2021년 10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됐다.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K-시티는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 규모로 조성했다. 자율주행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 대응력을 실험할 수 있도록 실제 5대 도로환경(자동차전용도로·도심부·커뮤니티부·교외도로·자율주차시설)을 재현했다.

K-시티 조성 이후 이곳에서 시험운행을 통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는 모두 71대로 전체 중 39%를 차지한다. 약 46억 원에 이르는 사용료 감면 혜택도 91개 기업과 대학에 돌아갔다. 현재까지 자율주행차 실험에 참여한 기관은 총 108개, 횟수는 2354회(무상 2064회 유상 290회, 1만 2199시간)이다.

자율주행은 아직 미개척지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술력을 가졌더라도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기 힘들다.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술



10월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된 자율주행 실험단지인 자동차안전연구원 K-시티 | 자동차안전연구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2019년 초부터 K-시티를 무상으로 개방했다.

건물면, 신호교차로, 버스전용차로 등을 모사한 K-시티의 도심부 | 자동차안전연구원

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2019년 초부터 K-시티를 무상으로 개방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재정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포기할까 생각했다”며 “그런데 K-시티를 무상으로 개방해줘서 버틸 수 있었고 지금은 자율주행차 관련 정부과제 프로젝트 100억 원 수주 등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꼭 필요한 인프라”라고 말했다.

자동차가 정식으로 제작·판매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시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 즉 안전기준이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안전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상용화가 어려웠는데 K-시티의 실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3단계(레벨 3)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K-시티는 앞으로 시설과 장비를 첨단화해 4단계(레벨 4), 나아가 5단계(레벨 5) 이상의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시험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애초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주 대상으로 조성했으나 자율주행차법 등의 시행으로 자율주행 기술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어 K-시티의 첨단화가 필요해졌다. K-시티는 이를 통해 레벨 4 이상의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우리나라 자율주행 발전 위해 꼭 필요한 환경”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 이상)에서는 조건부 자율주행차(레벨 3)와 달리 돌발 및 위험 대처상황에서도 인간이 아닌 차량이 전적으로 운행을 책임진다. K-시티는 기상, 통신(터널·빌딩숲), 도심부 혼잡주행 등 운전이 어려운 고도환경에서도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만들기 위해 테스트 시설을 만들고 있다.

심사를 담당한 서경중 감독(이날치밴드 한국관광공사 광고 제작)은 “자율주행차는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정부·기업·학계 모두가 힘을 합쳐 세계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방향과 맥을 같이해 이달의 한국판 뉴딜로 선정하게 됐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언주 방송작가는 “K-시티는 우리나라 자율주행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환경”이라며 “성공할 때까지 시험을 반복해 성과를 일궈내는 과정이 한국판 뉴딜의 도전정신과 다르지 않다”는 심사 소감을 밝혔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 주요 먹거리가 될 자율주행 산업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라는 어려움을 뚫고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 돼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로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찬영 기자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기배… 사회 편견 해소되길”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대한 시민 목소리

여성가족부는 11월 25일까지 누리소통망(SNS)에서 ‘약속 있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하자는 일종의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하기로, 약속해요!’라는 약속 메시지와 ‘해시태그, 약속 동작(제스처)’을 한 사진을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게시한 뒤 지인을 지목하거나 추천하면 된다.

1인 가구, 비혼 가구, 한부모가족 등 가족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는 가운데 여가부는 지난 4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방안을 내놴다.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비전 아래 4개 영역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기본계획에는 현재 우리 사회에 등장한 여러 가족 형태 변화를 인정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특히 혼인·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동거와 사실혼 가정이나 학대 아동 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와 민법 제799조를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이루며 사는 시민들에게 기본계획의 의미를 물어봤다.

비혼 동거 가구 “법률상 가족 인정 의미 있어”

2019년 강원도에 살림을 차린 이 모(47) 씨와 장 모(45) 씨는 결혼식은 물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두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얽매이기보단 둘이 서로 사랑하며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 비혼 동거를 택했다.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는 데도 “나이가 좀 있지만 병원 다니며 노력해보자”는 장 씨 부모의 다소 과한 간섭이 비혼 동거 쪽으로 마음을 굳히게 했다. 결혼과 더불어 가부장적 분위기 속에 끌려가듯 살고 싶지 않았다.

“둘 모두 현재 상황에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다만 걱정이 전혀 없진 않죠. 아직 체감하진 못했지만 서류상으로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비전 모든 가족,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목표 가족 다양성 인정·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영역별 과제	①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
	②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③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
	④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제도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동거 및 사실혼 가정도 법률상 가족의 범위 안에 포함하는 등의 기본계획 내용은 두 사람에게 매우 의미 있다.

“병원에 함께 가도 보호자 맞느냐며 가족관계부터 먼저 묻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아마 저희 같은 비혼 동거 가정 말고도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많이 있을 텐데 가족 다양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 양육비가 없으면 일과 육아라는 부담을 동시에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법률적으로 강화한다니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한부모가족 “사회 인식도 함께 달라지길”

경기도에 사는 최 모(37) 씨는 이혼 후 아홉 살 딸과 단둘이 살고 있다. 남편과 다툼이 반복되면서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고 2016년 이혼했다.

“요즘 한부모가족이 뭐 한 둘인가? 안 맞는 걸 참고 살던 시대는 지났어. 잘했어.” 이혼 결정 내린 것을 후련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잘한 걸까’ 걱정도 많았던 그에게 친한 지인의 말은 큰 힘이 됐다. 한데 편견의 벽은 생각 이상으로 높았다.

“요즘엔 한부모가족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지만 제가 이혼 하던 당시만 해도 편모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가 ‘부모 혼자 키운 자식들은 어두운 면이 있다’는 얘기를 유치원 학부모회 모임에서 했다가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고 미안해하던 일도 있었죠. 악의는 없었겠지만 한부모가족을 향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함께 사회 인식 또한 많이 달라졌으면 합니다.”

“양육비 책임 법률 강화 잘 정착했으면”

서울에 사는 강 모(28) 씨는 이번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부양육자(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은 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는 양육비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 같은 전 남편의 태도 때문에 불안했다. 최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부양육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

“아이를 혼자 양육해야 하는 부모 입장에서 양육비가 없으면 일과 육아라는 부담을 동시에 떠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아이에게 신경 써주기도 어렵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법률적으로 강화한다니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이 계획으로만 머물지 않고 정말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됐으면 합니다.”

강 씨는 ‘건강가정기본법’에 포함된 ‘건강가정’이라는 표현을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에도 찬성한다고 밝

혔다. 그는 이 표현 안에 숨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지적했다.

“‘건강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마치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있다는 걸 상정해둔 거 같잖아요. 이런 법안과 계획 하나하나에서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평등함을 추구하려는 사회인지를 말해준다고 봐요. 건강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가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등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다른 표현을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김정연 기자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무얼 담았나?

여성가족부는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5년마다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앞으로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은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형태 다변화, 개인 권리에 대한 인식 증대 등 최근의 급격한 가족 변화 등을 반영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에서 차별을 없앤다. 기존에는 친모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거나 친모가 협조하지 않으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친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령을 만 24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한다. 법원의 감치명령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2021년 7월 13일부터 출금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고독·고립 방지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돌봄공동체 모델을 개발·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청소년 부모의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2021년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향후 만 24세 이하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제 곧 신북방정책 성과 드러낼 것”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인터뷰

신북방정책은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9개 다리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9개 다리는 조선, 항만, 북극항로와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 등이다. 문재인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박종수 위원장은 이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성과로 조선을 꼽았다.

그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서구의 대러 제재, 코로나19 등 대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조선 분야 협력은 지금도 아주 활발히 잘 되고 있다”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로부터 쇠

빙선을 포함한 선박을 수주한 게 46척 정도 되고 수주액은 약 11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보스토크 외곽 항구인 볼쇼이카멘에서는 즈베즈다 조선소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 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 등 우리 조선업체가 협력단지(클러스터)를 이뤄 함께 선박을 건조하고 있다. 공동 건조를 위해 연말까지 즈베즈다 조선소에 들어갈 우리 직원만 약 350명이라고 했다. 조선소 일대에는 신도시가 조성된다. 최근 국토교통부의 한국형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에 볼쇼이카멘이 선정됐다. 박 위원장은 “단순히 조선업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업체들이 참여하는 주택 건설, 의료 등 연관 분야까지 같이 들어가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장 |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남북관계, 북미관계, 서구의 대러 제재, 코로나19 등 대내외 변수에도 불구하고 조선 분야 협력은 지금도 아주 활발히 잘 되고 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로부터 쇠빙선을 포함한 선박을 수주한 게 46척 정도 되고 수주액은 약 11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북방협력 30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3차 북방포럼' 개막식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극동·울산서 러시아의 강한 의지 확인

지난 9월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 임명된 그는 첫 번째 현장 방문지로 극동 지역을 선택해 10월 말 연해주와 사할린까지 돌아왔다. 신북방정책의 주요 사업들이 이 지역과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나진-하산 물류 사업을 다시 가동할 준비가 돼 있고 유라시아 대륙철도(TSR, TCR) 연결 사업도 코로나19 대유행만 끝나면 바로 활성화한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알렉세이 체쿤코프 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이 대유행만 어느 정도 해소되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대륙철도, 가스관, 전력망 모두 북한을 통과해야 하는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의외로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의지는 11월 3~5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에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35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800여 명이 참석했는데 129명이 러시아 대표단이었다. 체쿤코프 장관과 극동개발공사 사장 등 러시아 중앙정부뿐 아니라 극동연방관구와 북극지역 18개 지방정부에서 대거 방한했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방한한 외국 사절로는 아마 최대 규모일 것”이라며 “비즈니스 상담까지 성황리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모죽’처럼 북방 14개 나라에 내칠 다져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 동북3성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도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에 적극적이다. 특히 2017년 11월 방한했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최근 대선에서 재선되자 12월 다시 우리나라를 찾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특별한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경제동맹이라고 할 정도로 호의적”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 5년 차에 중책을 맡은 그는 ‘모죽의 원리’를 떠올린다고 했다.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씨를 뿌리고 열심히 관

리해줘도 3, 4년 동안은 작은 죽순이 나오는 것 말고는 변화가 없다. 어느 순간 눈에 띄게 자라기 시작해 며칠 새 높이가 20~30m에 달한다. 땅속에서 사방으로 뿌리를 뻗어 내실을 다지는 인고의 시간을 거친 뒤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신북방정책은 무게 있는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 뿌리를 내리느라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잘 추스르면 이제 곧 성과를 드러낼 것입니다.” ●

원낙연 기자

‘제3차 북방포럼’ 열어 유라시아와 경제협력 모색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주최한 ‘제3차 북방포럼’이 11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렸다. 북방 14개 협력국가와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대한민국과 유라시아의 경제협력 비전을 공유했다.

‘북방협력 30년,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특별 세션 ‘글로벌 경제환경 및 국제질서 변화와 신북방정책’ ▲비즈니스 세션 ‘유라시아의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하여’ ▲금융협력 세션 ‘유라시아 지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서비스의 역할과 과제’ 등이 진행됐다.

특별 세션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미·중과 미·러 갈등 지속, 기후 변화 대응 정책 등 대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북방 국가와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구체적 전략을 논의하는 한편, 역내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북방 국가와 수교 이후 30년 동안 경제 협력 지평 확대를 위한 도전과 성과를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경제·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금융협력 세션에서는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사업경험을 공유하고, 민간 금융서비스 변화 및 유라시아 지역 금융 수요를 살펴보고, 나아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고 유라시아 지역 경제협력을 위한 금융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

혈액 수급 빨간불... “적극적 헌혈 동참을”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영향으로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7일 기준 혈액 보유량이 4.1일분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 5일분을 밑돈다고 밝혔다. 혈액 수급 위기 단계는 혈액 보유량이 적정 수준인 5일분보다 적으면 관심, 3일분 미만이면 주의, 2일분 미만이면 경계, 1일분 미만이면 심각 단계로 분류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들어 10월 말까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00여 건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헌혈의 집 방문 헌혈 감소 및 단체 헌혈 취소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처럼 헌혈자 감소 추세가 이어진다면 원활한 혈액공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과 같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수혈이 어려워질 수 있다. 더욱이 겨울철 유동인구 감소와 고등학교, 대학교의 방학 등으로 지속적인 헌혈자 감소가 예상되고 있어 심각한 혈액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1월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동절기에 안정적으로 혈액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이행 상황을 확인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헌혈장려조례 제정 및 시행 상황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해 헌혈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회,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 협조 방안 및 홍보대책 등을 전달하고 정부, 공공기관, 군부대 등의 적극적인 단체헌혈 참여를 요청했다.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 1일부터 26일까지 ‘임직원 집중 헌혈 기간’으로 지정해 헌혈을 독려하고 있다. 공단은 이날 임직원 100여 명이 공단 본부의 열린광장에서 헌혈증을 기부하는 ‘생명나눔 헌혈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헌혈 시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어”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회,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 협조 방안 및 홍보대책 등을 전달하고 정부, 공공기관, 군부대 등의 적극적인 단체 헌혈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헌혈 동참 호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다양한 헌혈 참여 이벤트,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을 통해 혈액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대규모 아파트단지에 인근 헌혈의 집·카페와 연계한 ‘찾아가는 헌혈버스’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혈을 독려하고 군부대의 단체 헌혈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계절적 요인이 겹쳐 혈액수급에 큰 위기가 왔다”며 “수혈이 필요한 환자와 그 가족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십자사는 전국의 헌혈의 집을 정상운영하고 있다”며 “헌혈 장소에 칸막이 설치, 주기적인 소독 등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헌혈 시 코로나19 감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

심은하 기자



서울 노원구 서울동부혈액원에서 시민들이 헌혈을 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요소수 수급 파란불... “입고량, 하루 판매량 초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1월 15일 경기도의 한 요소수 생산업체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환경부

요소수 생산량이 11월 16일 100만 리터에 근접하면서 하루평균 국내 소비량(60만 리터)을 뛰어넘는 등 수급난 해소에 파란불이 켜졌다. 특히 이날 100여 개 중점 공급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입고량이 하루 판매량보다 많았다.

정부는 11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전국 요소·요소수 수입·생산·유통·배분 물량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5대 주요 요소수 생산업체의 생산량은 11월 13일 27만 리터, 14일 56만 리터, 15일 68만 리터에 이어 16일은 96만 리터로 100만 리터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11월 16일 기준 100여 개 거점 유통 주유소에는 총 55만 1000리터가 입고된 가운데 이 중 39만 5000리터가 판매됐다. 거점 주유소 입고량이 요소수 판매량을 초과한 것이다.

100여 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은 국내 하루평균 사용량인 60만 리터 수준이다. 판매량은 하루평균 사용량의 3분의 2 수준을 소화할 정도의 물량으로 수급 개선이 이뤄지

100여 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입고량은 국내 하루평균 사용량인 60만 리터 수준이다. 판매량은 하루평균 사용량의 3분의 2 수준을 소화할 정도의 물량으로 수급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생산량이 빠르게 늘면서 중점 주유소 외 100여 개 주유소에도 요소수 공급량이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 신고 시스템상 신고한 전국 3109개 주유소의 전체 공급량에서 100여 개 중점 유통 주유소의 공급량을 제외한 수치는 11월 13일 5만 리터에서 15일 30만 리터까지 증가했다.

휴대전화로 재고 정보 실시간 제공

정부는 요소수 수요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 형태로 요소수 재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전국 소방본부와 보건소 구급차량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분야 요소수 재고도 안정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 다소 편차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평균 23일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 차량, 보건소 구급차량은 3~4개월 분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계속 진행한다. 각 지자체는 경찰청과 함께 요소수 관련 합동단속을 벌이고 행정안전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단속을 추진한 서울과 부산의 단속 사례 등을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중국에서 들여오기로 한 요소수를 빠른 속도로 도입하기 위한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11월 17일까지 1만 800여 톤에 대한 검사 신청이 완료됐다. ●

심은하 기자

웹툰·웹소설 타고 오디오 드라마가 뜬다

그룹 버글스는 그들의 노래 ‘비디오 킬드 더 라디오 스타(Video Killed The Radio Star)’에서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라고 한탄한다. 이 노래가 발표된 건 1980년이었으니 그로부터 40년이 훌쩍 지났다. 기성세대들은 누구나 라디오에 대한 추억이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한동안 큰 인기를 끌었던 라디오 연속극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추억으로 남아 있다. 인기가 높은 연속극이 방송되는 시간이면 밖에서 놀다가도 라디오 근처로 몰려들었다. 어린 시절 <서유기>와 같은 중국의 고전을 각색한 연속극을 들으면서 손에 땀을 뻘 흘렸던 경험은 해봤을 것이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여인극장> 등 로맨틱한 멜로 드라마를 들으면서 울고 웃었다. 나이가 지긋한 중장년들은 <김삿갓 북한방랑기>를 들으면서 실향의 아픔을 달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연속극에 출연하는 성우들이 인기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연속극은 1980년대 정점을 이룬 뒤 서서히 라디오 매체에서 자취를 감췄다.

듣고 즐기는 콘텐츠로 재생산

최근 들어 웹소설이나 웹툰의 인기를 등에 업고 이른바 오디오 드라마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웹소설이나 웹툰을 바탕으로 이를 각색해 만든 오디오 드라마가 젊은 층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대신 그 플랫폼이 라디오가 아닌 포털 등 다

양한 누리소통망(SNS)을 기반으로 바뀌었다.

사실 웹소설이 대세가 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 웹소설 시장은 2013년 약 100억 원에서 지난해 6000억 원으로 약 60배 커졌다.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 중인 작가 중에서 한 달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작가가 수십 명에 달한다.

최근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 공모전에 4000명의 작가가 5500편을 출품했다는 기록도 있다. 전문 작가들은 물론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공모전에 참여해 스타급 웹소설 작가를 꿈꾼다. 이런 열기를 바탕으로 웹소설이 웹툰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드라마 시장에서도 맹렬하게 원작을 사들이는 추세다.

오디오 드라마는 웹소설을 과거 라디오 연속극과 같은 형태의 듣고 즐기는 콘텐츠로 재생산한 결과물이다. ‘밀리의 서재’ 등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형태의 서비스가 발전해 성우들이나 연예인들이 등장해 만든 극형태의 드라마로 진화한 것이다. 아니 따지고 보면 과거 유행하던 라디오의 연속극이 라디오가 아닌 컴퓨터 속에서 부활한 것이다.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인 네이버 오디오 클럽에는 웹소설 원작 오디오 드라마 <재혼황후>, <문제적 왕자님> 등이 눈에 띈다. <구르미 그린 달빛>이나 <바른 연애 길잡이> 등도 인기 있는 오디오 드





오디오 드라마 〈재혼황후〉



오디오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 오피스 대중문화평론가(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문화 분야에서 기자로 일했다. 저서로는 시집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는 건 미친 짓이야〉, 에세이집 〈남만광대 전성시대〉 등이 있다. 현재는 문화 현장에서 일하면서 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라마다. 〈오피스 누나 이야기〉도 웹소설을 바탕으로 오디오 드라마로 제작돼 방송 중이다.

일부 오디오 드라마에는 성우는 물론 배우와 가수 등 스타들이 목소리로 출연해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방준석·달파란·김태성 등 영화음악 감독으로 활약하던 이들이 연출을 맡아서 완성도를 높이기도 한다. 오디오 드라마는 귀로 들으면서 운전 등 다른 일을 하기에 용이해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자가운전 중이거나 집안일을 할 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쉽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다시 오디오에서 매력 찾는 시대

오디오 드라마의 원작으로 웹소설이 주로 쓰이는 이유는 순수 소설보다 대화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오디오 드라마로 각색하는 과정

어쩌면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는 한탄은 다시 수정돼야 할지도 모른다. 영상에 멀미를 느낀 이들이 다시 오디오에서 매력을 찾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에서 타 장르보다 손쉽다. 또 오디오 드라마를 즐겨듣는 이들이 무거운 소재보다는 가볍고 경쾌한 소재를 선호하는 성향도 한몫한다. 웹소설의 서사와 캐릭터가 다른 장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잠시 흐름을 놓쳐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이무영 동서대 교수는 “웹툰이나 웹소설은 깊이가 있거나 복잡한 스토리 구조보다는 단순하면서도 경쾌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 이 때문에 무거운 주제나 소재보다는 로맨스나 판타지, 스릴러 등 몇몇 장르에 편중돼 있다”면서 “오디오 드라마도 이런 특성을 반영한 감각적인 매체여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젊은층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판타지 혹은 로맨틱 코미디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정보기술(IT) 업계에서도 오디오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오디오를 개발 중인 한 신생기업은 연예인들의 목소리를 활용, 수익을 다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가수 아이유와 계약을 맺고 3~4시간만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면 우리말은 물론 영어와 중국어 등 모든 콘텐츠를 오디오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매번 아이유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읽을거리를 여러 가지 언어로 제공할 수 있다.

어쩌면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는 한탄은 다시 수정돼야 할지도 모른다. 영상에 멀미를 느낀 이들이 다시 오디오에서 매력을 찾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

도쿄올림픽 열기 이어 더 뜨거워진 여자배구

2020 도쿄올림픽 4강 신화를 쓴 여자배구가 국내 프로리그(V리그)에서도 인기몰이를 하며 올림픽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국내 리그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더욱이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페퍼저축은행까지 흥행몰이를 하며 배구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인기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최근 시청률 조사에서 V리그 1라운드 케이블TV 평균시청률은 전국 케이블 가구 기준 1.12%(닐슨코리아)를 기록했다. 1라운드 평균시청률이 1%를 넘어선 것은 2005년 프로배구가 출범한 뒤 처음 있는 일이다.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모든 경기장에서 관중 입장도 가능해지며 현장의 열기 또한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V리그서 울고 웃는 올림픽 스타들

여자배구 열풍을 이끄는 건 무엇보다 도쿄올림픽에서 활약했던 국가대표팀 선수들이다. 현재 V리그 여자부에서 활약 중인 대표팀 선수는 안혜진·오지영(GS칼텍스), 박은진·염혜선·이소영(KGC인삼공사), 김수지·김희진·표승주(BK기업은행), 박정아(한국도로공사), 양효진·정지

윤(현대건설)이 있다. 중국 상하이로 이적한 김연경(33)을 뺀 11명의 선수가 국내 7개 구단 가운데 5곳에 분포했다. 대표팀에 대한 관심이 리그 전체로 퍼져나가는 이유다.

특히 대표팀 선수들의 엇갈린 희비는 리그 흥행의 주요 요소다. 지난 여름 도쿄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이들이 경쟁 상대로 만나 울고 웃으며 새로운 드라마를 쓰고 있고 팬들은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가장 분위기가 좋은 건 단독 선두 현대건설의 양효진(32)과 정지윤(20)이다. 양효진이 국내 선수 가운데 득점 1위(121점)를 기록하며 팀을 든든하게 지키고 신예 정지윤은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정지윤은 대표팀을 은퇴한 김연경이 직접 포지션(레프트) 후계자로 지목해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현대건설은 개막 8연승을 달리며 승점 23으로 리그 1위(이하 11월 16일 기준)에 올라있다.

이번 시즌 팀을 옮긴 이소영(27)의 활약도 눈에 띈다. 지난 시즌 GS칼텍스에서 V리그 여자부 최초의 트레블(리그+컵대회+챔피언 결정전 우승)을 이끈 이소영은 이번 시즌 KGC인삼공사로 자리를 옮기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리그 초반 잠시 주춤했지만 어느새 국내 선수 득점



1 KGC인삼공사 이소영 2 김형실 페퍼저축은행 감독이 11월 9일 기업은행과 경기에서 작전 지시를 하고 있다. | KOVO



현대건설 양효진(왼쪽 세 번째)이 11월 1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22 V리그 페퍼저축은행과 경기에서 공격에 성공한 뒤 선수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 KOVO

지난 여름 도쿄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던 이들이 경쟁상대로 만나 울고 웃으며 새로운 드라마를 쓰고 있고 팬들은 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2위(120점)까지 올라섰다. 양효진보다 1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 사실상 득점 1위에 다름 없다. 인삼공사는 6승 1패(승점 18)로 리그 2위에 올라있다.

반면 김수지(34), 김희진(30), 표승주(29) 등 국가대표를 3명이나 보유해 스타군단으로 꼽히는 IBK기업은행은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다. 이번 시즌 개막 7연패를 당하며 꼴찌인 7위에 처졌는데 창단 이래 최악의 연패 기록이다. 대표팀 선수들이 아직 제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인데 특히 도쿄올림픽 때 무릎 통증을 안고 뛰었던 김희진이 지난 11월 9일 페퍼저축은행과 경기에서 다시 무릎 부상을 당하며 우려가 커졌다.

국가대표 리베로 GS칼텍스 오지영(33)도 아직은 기대 이하다. 오지영은 지난 시즌 리시브 효율 2위(49.81%), 디그(스파이크를 받아내는 것) 3위(세트당 5.564개)에 올랐던 최정상급 리베로다. 하지만 이번 시즌 리시브 효율은 31.1%, 디그는 세트당 2.70개로 모두 10위권 밖에 머물러 있다. 역시 올림픽 피로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시즌 초반에는 엉덩이 통증으로 두 경기를 결장하기도 했다. 디펜딩 챔피언 GS칼텍스도 현재 리그 3위(승점 15)에 머물러 있다.

다만 부진한 선수들도 워낙 경험이 풍부한 데다 리그 최정상급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본래 몸 상태를 회복하면 충분히 반등을 만들어낼 저력이 있다.

‘런던 4강’ 감독이 이끄는 매운 막내들

신생팀 페퍼저축은행도 올 시즌 여자배구에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막내들의 반란이 여자배구 흥행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광주광역시에 둥지를 튼 페퍼저축은행은 지난 11월 9일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1로 승리하며 창단 첫 승을 따냈다. 개막 6경기 만에 거둔 승리로 신생팀이라는 악조건을 딛고 예상보다 빨리 첫 승을 따냈다.

페퍼저축은행의 선전에는 또 다른 기적의 주인공 김형실(69) 감독의 역할이 컸다. 김 감독은 2012 런던올림픽에서 대표팀을 이끌며 4강 신화를 썼던 주인공이다. 김 감독은 V리그 남자부와 여자부를 통틀어 최고령 감독인데 평균 나이가 21세에 불과한 선수들과 ‘신구조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 감독은 “팬들도 늘고 선물도 많이 들어온다. 선수들 입장에서 벌써 일류팀이 된 기분일 것”이라고 전했다. 막내들의 활약이 리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셈이다.

올림픽 스타들에 무서운 막내들까지. 이번 시즌 여자배구 열풍은 김연경이라는 최고의 스타가 국외 이적을 선택한 가운데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 최고 인기 프로스포츠인 프로야구의 시청률까지 넘보고 있다. 지난 여름 도쿄의 열기는 이곳 V리그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



● 이준희
〈한겨레〉 기자

‘막 거른’ 술 한잔에 일상회복 카~

막걸리에 얹힌 우리말

여전히 코로나19의 기세가 무섭지만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인들과 술자리 모임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술을 좋아하세요? 필자는 기분 좋은 달콤한 맛에 어떤 음식에 곁들여도 무난하게 잘 어울러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술 막걸리를 즐겨 마시는데요. 요즘은 지역 특색을 갖춘 제품이 많이 나와 여행지에 가면 그곳의 막걸리를 경험하곤 합니다. 전국에서 판매되는 막걸리만 500여 종에 이른다고 하니 여행을 핑계 삼아 ‘막걸리 마니아’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한데요.

사실 막걸리는 대한민국 주류 매출의 일등공신인 소주, 누구나 즐겨 마시는 맥주, 마니아층을 보유한 와인 등에 밀려 외면받기 일쑤였습니다. 10년 전 한류와 함께 ‘K-막걸리’ 전성시대가 열렸지만 이후 급격히 위축돼 인기가 시들해지고 해외 수출도 주춤했는데요.

최근 막걸리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막걸리=싸구려 술’이라는 오명을 벗고 고급화 전략을 목표로 원료, 제조 방식, 숙성 기간 등을 다양화하면서 MZ세대(밀레니얼과 Z세대를 합친 말로 1980~2000년대 초반 출생한 20~30대를 아우르는 말)를 주요 소비층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요. ‘전통주 당일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주류업체가 있는가 하면 양조장에 직접 찾아가 막걸리를 맛보는 ‘막걸리 양조장 투어’가 성행하고 정기적으로 막걸리를 집으로 보내주는 ‘막걸리 구독 서비스’도 생겼습니다.

막걸리를 즐기는 세대만이 아니라 막걸리 자체도 젊어졌습니다. 주류업체와 기업 간 다양한 협업으로 희소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막걸리를 넣은 빵이나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이색 제품이 쏟아지는데요.

‘탁배기’ ‘탁주배기’ ‘탁바리’

전통 막걸리는 쌀(참쌀)과 누룩, 물만 있으면 누구나 빚을 수 있습니다. 쌀, 누룩, 물로 술을 만든 뒤 거르는 방식에 따라 ▲청주 ▲탁주 ▲소주로 나뉘는데요. 청주는 말 그대로 ‘맑은 술’이고 탁주는 ‘흐린 술’입니다. 탁주에 용수(체의 일종)를 박아서 맑은 술만 떠내면 청주가 되고 탁주에 열을 가해 증류시키면 소주가 됩니다.

그렇다면 막걸리와 탁주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934년부터 1995년까지 집에서 술을 빚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시행되면서 민가에서 술 빚는 행위는 불법이 됐고 민가의 다양한 막걸리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상품화된 탁주는 지역명과 함께 막걸리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돼 현재 탁주와 막걸리는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탁주는 막걸리보다 큰 개념입니다. 법으로



게티이미지뱅크

막걸리의 ‘막’에 대한 재밌는 어원도 있습니다. ‘막’을 ‘함부로’ ‘거칠게’로 봐 ‘함부로 막 거른 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막’을 ‘금방’ ‘곧’으로 봐 ‘금방 막 거른 신선한 술’이라 막걸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는 탁주라는 공식어가 있지만 막걸리가 서민 술이어서 한글 표현인 막걸리가 상표로 더 편하고 친근하게 사용되는 셈인데요.

막걸리는 지역에 따라 ‘탁배기’ ‘탁주배기’ ‘탁바리’라고도 불렀는데요. 특별한 안주도 없이 큰 술잔에 마시는 습성이 있어서 ‘대포술’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대포술의 ‘대포(大砲)’는 큰 바가지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대포 한잔 할까?’ 하는 말은 ‘막걸리 한잔 할까?’와 같은 말로 쓰입니다.

‘막걸리 빚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막걸리의 ‘막’에 대한 재밌는 어원도 있습니다. ‘막’을 ‘함부로’ ‘거칠게’로 봐 ‘함부로 막 거른 술’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는데요. ‘막’을 ‘금방’ ‘곧’으로 봐 ‘금방 막 거른 신선한 술’이라 막걸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동동주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동동주는 혼탁한 정도와 상관없이 발효 뒤 밥알이 동동 떠 있는 술을 뜻합니다. 마치 개미가 떠 있는 것처럼 보여 ‘부의주(浮蟻酒)’라고도 부릅니다.

얼마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막걸리 빚기’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인데요. 특히 2019년 지정된 ‘숨은 무형유산 찾기’ 공모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으로 국민이 직접 무형문화재를 제안해 지정된 첫 번째 사례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막걸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내친김에 정부와 업계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나섰다고 하니 좋은 소식 기다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어르신들만의 술’이 아닌 막걸리. 우리나라 고유의 술 막걸리 위상이 지금보다 높아지고 세계로 더욱 뻗어나가 ‘제2의 막걸리 전성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백미현 기자

※ 참조: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허시명 <막걸리, 넌 누구냐?>

시대의 아픔과 분단의 한계를 넘어

대중의 인기와 전문가 평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불일치는 예술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미술도 예외일 순 없다. 예컨대 일반인들은 대체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근대화 가로 박수근(1914~1965)이나 이중섭(1916~1956)을 좋아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두 화가 그림은 미술시장에서 꽤 비싼 가격으로 거래된다.

반면 우리나라 근대미술사를 연구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은 이인성(1912~1950)과 이쾌대(1913~1965?)를 대표작가로 손꼽는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박수근이나 이중섭에 비해 이인성과 이쾌대가 대중들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유는 요절과 월북 때문이다. '천재 화가' 소리를 들던 이인성은 서른 여덟이란 젊은 나이에 권총 사고로 허무하게 죽었고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중시했던 이쾌대는 1953년 6·25전쟁 때 월북함으로써 오랫동안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언급조차 할 수 없는 잊혀진 존재가 됐다.

이런 가운데 이중섭의 경우 제주도 서귀포에 그의 이름을 딴 미술관이 생겼고 '이중섭 미술상'이 제정돼 권위 있는 미술상으로 자리 잡았다. 강원도 양구군엔 박수근미술관이 건립됐다. 그 런가하면 대구시는 '이인성 미술상'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얼마 전 22회 수상자로 화가 유근택을 선정했고 현재 대구미술관에선 21회 이인성 미술상 수상자인 제주도 작가 강요배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근대 리얼리즘 회화의 거장

다른 작가들의 이런 기념사업에 비하면 이쾌대에 대한 평가와



1

1 이쾌대, '군상 IV', 캔버스에 유채, 177×216cm, 1948(추정)

2 이쾌대,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 캔버스에 유채, 72×60cm, 1940년대

3 이쾌대, '불처녀', 캔버스에 유채, 91×60cm, 1940년대

재조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1988년 남·월북 미술인 해금 조치 단행으로 그의 존재가 복권되고 세상에 다시 이름이나마 알려지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하겠다. 이후 1991년 신세계백화점 창립 29주년 기념으로 신세계미술관에서 유작전이 열렸고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거장 이쾌대, 해방의 대서사'라는 제목으로 대규모 회고전이 개최됐다.

이쾌대의 고향은 경상북도 칠곡군. 할아버지는 지금의 공수처 검사 격인 금부도사, 아버지는 군수 격인 현감을 지낸 세도가 집안의 2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3만석꾼'으로 불렸을 만큼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이쾌대는 어려서부터 신학문과 기독교를 받아들이며 '모던 보이'로 성장했다.

화가 이인성과는 대구 수창보통학교 동창생이었다. 경성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진학한 뒤에는 그림보다 야구부 활동으로 먼저 이름을 알렸다. 그러면서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서 입선하는 등 그림에도 탁월한 소질을 발휘했다. 1933년 일본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로 유학하면서 본격적인 화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쾌대는 식민지 조국이 겪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 민족을 위한 화가의 소명이 무엇이고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해 고민했다. 전통과 우리 것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이쾌대 그림의 주제 의식은 이때부터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근대 우리나라 리얼리즘 회화의 전형으로 완성됐다.

1948~49년경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은 이쾌대의 대표작이다. 우리나라 시골 풍경을 배경으로 상반신 자화상을 배치한 구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흡사하다. 유화물감 팔레트와 동양화 모필 붓을 든 채 서양식 중절모를 쓰고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은 다소 불안정한 화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듯하다. '봄처녀'는 이 작품과 쌍을 이루는



2

듯한 그림이다. '두루마기 입은 자화상'이 다소 평면적인 느낌이고 푸른 색이 두드러지는 데 비해 '봄처녀'는 부드러운 명암으로 역동성과 양감이 강조되고 붉은색이 도드라져 보인다.

민족의 불행 속에서 잊혀진 화가

워니워니 해도 이쾌대의 대표 걸작은 '군상(群像)-해방고지(解放告知)' 시리즈. 총 네 점이 제작된 이 그림은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크기 2m가 넘는 대작이다. "해방을 알린다"는 제목처럼 해방 소식을 전하는 사람과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다양한 인물상이 역동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역임한 미술사학자 김영나 서울대 명예교수는 저서 <1945년 이후 한국 현대 미술>에서 "이들 군상은 한국 서양화의 짧은 역사에서 처음으로 시도



3

된 장대한 역사화라는 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며 "초창기 유화에서 인물화들이 주로 한두 명의 인물을 그리는 습작류가 많았던 것을 상기하면 많은 인물을 통합시키는 드라마틱한 구성이나 인물들의 동작과 자세의 다양한 움직임, 감정 표현이 매우 감동적"이라고 서술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쾌대의 흔적은 월북 이전까지다. 시대의 아픔, 분단의 한계를 넘어 이쾌대 같은 불행한 예술가의 기억을 복원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 이준희 건국대 현대미술학과 겸임교수

미술대학을 졸업했지만 창작에서 전향해 몇 년간 큐레이터로 일했고, 미술 전문지 <월간미술> 기자로 입사해 편집장까지 맡아 18년 8개월 동안 근무했다. '저널리스트'로 불리는 것보다 여전히 아티스트에 가까운 '미술인'으로 불리기 원한다.

공감 리뷰



어린 시절 '돌부처'라 불리던 이창호 9단을 바둑TV를 시청하며 응원했습니다. 또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도 인상 깊게 봤고요. 그후 학생 때는 바둑 생각을 안 하고 살았어요. 한참이 지난 후 우연히 이번 기사를 보니 많은 바둑 인재가 양성됐네요. 신진서, 신민준 등 걸출한 스타들이 나와 세대교체를 했다니 뿌듯합니다. 우리나라 바둑의 미래가 탄탄합니다. 다시 우리 선수들의 대국을 보며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유다은 전주 덕진구 금암동



202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한 달에 한 권씩은 꼭! 책을 읽자'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한 해가 끝나도록 한 권도 읽지 못해 후회스러웠던 찰나에 <이달의 추천도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책은 인생 최고의 스승이라는 말처럼 책 안에는 삶의 지혜와 인생의 교훈이 담겨 있는데 독서하기 좋은 계절에 추천한 책을 읽으면서 휴대전화 중독에서 잠시 벗어나 혼자만의 여유를 만끽하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조건희 부천 오정구 소사로

사진 공감



무르익은 가을 경기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에서 메밀수확 체험을 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나에게 메밀이란 메밀국수로만 익숙해 수확이 더 기대됐다. 메밀꽃 군락지에 펼쳐놓은 메밀대를 처음 도리깨질 했는데 몸 따로 도리깨 따로였다. 이튿날 팔이 쿡쿡 쑤셨지만 메밀을 심고 가꾸고 수확했을 농부의 땀방울과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방윤희 서울 송파구 풍성로6길

디지털 <공감> 이곳에서 만나세요!

공감 gonggam.korea.kr

f www.facebook.com/wegonggam

www.instagram.com/wegonggam

k content.v.kakao.com/3094

www.youtube.com/user/weeklygonggam

정책브리핑 누리집 www.korea.kr

post.naver.com/mcst_pr

blog.naver.com/mcst_pr

ridibooks.com

digital.kyobobook.co.kr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감 리뷰'와 '사진 공감'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공간입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1일까지 이메일(gonggam@hani.co.kr)로 보내주세요.

다음 호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정된 분께 기프트콘(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2021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www.edudonation2021.com

2021. 11. 23(화) - 12. 02(목)



우리 함께 헌혈하러 가요!

헌혈로 생명을 살리고, 나눔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일상의 영웅들. 우리는 **헌혈실천단**입니다.



헌혈홍보대사
아나운서 김민정

헌혈홍보대사
아나운서 조충현

Saving Lives, 적십자는 생명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